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공동육아과정에 참여하는 부모들의
공동체학습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평생교육전공
최 철 규

공동육아과정에 참여하는 부모들의
공동체학습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지도교수 한 승 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평생교육전공
최 철 규

최철규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부모들의 공동체 안에서의 경험과 그들의 학습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며 육아 공동체 속에서의 학습과정이 어떻게 드러나며, 그러한 참여가 어떤 방식으로 실제 교육과정 기획과 운영 및 본인의 육아 철학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논의를 위해 연구자는 공동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서적과 홈페이지, 신문 매체, 책자 등을 활용하여 공동육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문서와 시각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총 11명의 제보자를 총 14회에 걸쳐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공동육아 조합원들이 공동체의 존재가치와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 계기와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공동육아 조합원들은 공동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며 공동체에서의 참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셋째, 자기학습과정이 자신의 육아방식에 어떠한 모습으로 피드백 되는가?

대부분의 조합원은 공동육아에 대한 정보를 지인이나 공동육아 사이트나 책자 등을 통해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해당교사의 소개를 받으면서 공동육아를 알아가게 된다. 또한 공동육아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공동육아를 하는 조합원도 있었다. 그리고 기존의 교육패러다임에 대한 재고로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선택한 조합원도 있었으며 같은 교육이념을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공동육아에 관심을 가진 조합원도 있었다.

조합원으로서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학습경험을 하게 되는데 첫째, 다른 조합원과의 관계맺기이다. 조합원들과의 관계맺기 방식은 아이를 매개로 시작하다가 그 내용이 확장되어 자녀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이야기로 바뀌면서 다른 조합원과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둘째는 토

의와 토론을 통한 수평적 소통의 참여이다. 이러한 토론과 토의를 통해 조합원들은 자신의 모습을 반추해 볼 수 있으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계기도 형성된다. 셋째는 개인적 사고의 집단적 공유이다. 조합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보를 얻으며 생각을 교류한다. 넷째는 날적이를 통한 반성적 글쓰기와 성찰이다. 날적이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과거에는 어떠한 삶을 알았는지 그리고 지금은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살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재정립하게 해 준다. 다섯째, 육아에 대한 아빠의 새로운 역할 인식이다. 아빠들은 이사회에서의 활동을 통해 그리고 아마활동을 통해 조합원으로서, 아빠로서 새로운 역할을 인식하게 된다.

공동육아에서의 공동체 활동으로 조합원들은 다음과 같이 그들의 양육방식에 변화를 겪는다. 먼저 '주변적인 참여'에서 '주도적 참여'로의 변화이며 두 번째는 '학부모'에서 '부모'로의 변화이다. 세 번째는 '부모시각'에서 '아이시각'으로의 변화이다. 넷째는 '내 아이'에서 '우리 아이'로의 변화이며 마지막으로 육아의 몫이 '엄마'에서 '아마'로의 변화이다.

본 연구를 통해 결과적으로 발견된 것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육아를 지향하는 어린이집에서의 학습과정은 부모들이 공동체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성찰, 반성작용으로 능동적인 성인학습자로 성장해가는 과정이다. 둘째, 조합원들이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잘 적응할 때 중요한 것은 다른 조합원과의 인간적인 만남과 그 안에서의 의사소통이었다. 셋째, 조합원들은 교육을 통해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한 경험에 의미를 찾고 자신을 반성할 때 본인 스스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며 결국에 이것은 자신의 삶과 양육 방식에 일정한 영향력을 끼친다.

*** 주요어 : 공동육아, 학습, 평생학습, 평생교육, 질적 사례연구, 공동체**

*** 학 번 : 2006-23342**

목 차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문제	6
3. 연구방법 및 절차	7
1) 연구방법	7
2) 연구사례개관	8
가. 은울 어린이집의 설립과정 및 운영방식	8
나. 은울 어린이집의 프로그램	13
3) 연구절차	19
가. 자료수집	19
나. 분석 및 해석	23
II. 이론적 배경	25
1. 공동체성의 의미	25
1) 공동체의 개념	25
2) 공동체의 구성과 원리	28
2. 공동육아 연구	30
1) 공동육아의 등장과 역사	30
2) 공동육아의 이념	33
III. 조합원으로서의 입문	36
1.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 계기	36
1) 주변 사람들의 권유와 믿음	36

2) 공동육아에 대한 기대감	39
3) 기존의 교육패러다임에 대한 재고	41
4) 같은 교육이념을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 욕구	43
2. 조합원으로서 자리 잡기	47
1) 초기적응과 부담감	47
2) 적응하기 위한 의지	49
IV 조합원들의 학습활동과 육아방식의 변화	52
1. 조합원들의 학습활동	52
1) 다른 조합원과의 관계맺기	52
2) 수평적 소통의 참여	58
3) 개인적 사과의 집단적 공유	65
4) 날적이를 통한 반성적 글쓰기와 성찰	68
5) 육아에 대한 아빠의 새로운 역할 인식	72
2. 조합원들의 육아방식에 피드백 되는 모습 분석	80
1) ‘주변적인 참여’에서 ‘주도적 참여’로의 변화	80
2) ‘학부모’에서 ‘부모’로의 변화	83
3) ‘부모 시각’에서 ‘아이 시각’으로의 변화	88
4) ‘내 아이’에서 ‘우리 아이’로의 변화	93
5) 육아의 몫이 ‘엄마’에서 ‘아마’로의 변화	96
V. 논의	100
VI. 요약 및 결론	104
1. 요약	104
2. 결론	107
참고문헌	110
Abstract	116

표 목 차

<표 I-1> 2012년 교사 한해 교육일정	11
<표 I-2> 은율 어린이집의 하루 일과	16
<표 I-3> 영역별 활동계획	18
<표 I-4> 제보자 인적 사항	22
<표 III-5> 공동육아에 참여하게 된 계기	49

I 서론

1. 문제제기

오늘날 우리사회는 핵가족화, 산업화의 가속화로 가족 구성원 간 상호작용의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간에, 형제간의 대화의 단절과 불협화, 이웃, 지역사회, 친족집단간의 고립과 소외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더욱이 기혼여성들의 사회진출 확대에 의한 맞벌이 비율이 40.1%(통계청, 2009)로 과거 10년 전에 비해 30%나 증가한 상황에서 출산 자녀수가 줄어들고, 핵가족형 가구의 증가로 가족의 고립성은 심화되고 있으며 개인과 개별 가족도 이를 해결하는데도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다(류경희·김순옥, 2000).

이에 따라 국가, 기업, 비영리 단체에서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양식을 보이고 있지만 제한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김주현, 1999), 아동육아에 대한 제반 여건마련은 미비한 수준에 있다. 또한 가족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는 개인적으로나 가족이 개별적으로 대응하여 해결하기에는 벅차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웃과 지역사회가 상호의존적인 삶을 영위하는 공동체적 삶의 형태를 통해서 서로 협동적으로 극복해 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즉 공통의 문제를 가진 가족들이 연대해서 공동의 힘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대안적인 육아의 형태인 ‘공동육아’가 대두되었다. ‘공동육아’란 말은 내 아이를 맡기거나 남의 아이를 맡아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우자는 뜻이다. 여기서 ‘함께’란 나뿐만 아니라 이웃, 지역사회, 국가 모두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함께 키운다는 의미이다(정병호, 1994). 다시 말하면, 공동육아는 자녀양육과 같은 일상생

활에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공동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가족들과 자율적으로 관계망을 형성하여 공통의 유대와 평등한 인간·사회관계를 맺으면서 상호작용하고 대안적 가족으로서의 구체적인 삶과 현장을 만들어가려는 것이다(류경희·김순옥, 1999).

연구자는 딸의 유아교육에 관심을 가지며 살펴보다가 우연히 공동육아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를 접한 후 그 단체에 대해 조사를 해봤다. 직접 현장에서 가서 아동을 가르치는 교사의 안내 말씀을 듣고 그 후에 학부모들을 만났다.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궁금했던 것은 도대체 그들은 왜 적지 않은 출자금을 내고, 일반 유치원보다도 더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그리고 다른 유치원처럼 독특한 프로그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왜 보내는가였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대부분 유치원 버스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한다. 연구자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다른 어린이집하고 어떤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무엇이 부모들의 마음을 끄는지 궁금해졌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공동체에서의 학습에 있었다.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성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 속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형성이다. 여기에서 학습은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학습은 인간의 사회적 참여와 관계형성의 한 가지 독특한 방식으로서, 학습을 통해 예전에는 소통될 수 없었던 두 사람 또는 두 세계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단계로 이를 수 있게 되며 미완성의 관계를 완성적 참여 또는 완성적 관계로 변화시켜 준다(한승희, 2008: 104). 그리고 공동체에 속한 성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지식을 확장시키며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새로운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 속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인 및 조직의 발전을 위해 학습을 주도하며 결국에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세부적인 교육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이다. 다시 말해

학습은 일상생활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다른 경험과 사고를 가진 개개인들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동육아를 시작하는 성인들은 공동체 속에서 같은 지향점을 가진 구성원과 연대하며 아동들의 총체적인 발달과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공유하면서 개개인의 삶의 영역과 삶의 환경을 확장시킨다. 학습은 다양한 경험을 해 온 성인들이 의견을 공유하고 함께 합의점을 만들어 가는 과정(한승희,2001;Javis 1987)이기 때문에 상호간의 접촉과 소통은 자신의 기존 사고체계의 연장선상에서 더 확장하여 새로운 경험을 구성해 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서로 다른 성인들이 기존의 경험을 타인과 어떻게 소통하고 공유하여 하나의 공동체로 융합해 나가며 이러한 과정 속에 내포되어 있는 학습양식과 학습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래서 그러한 학습이 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는 부모들이 어떻게 육아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며 그 공동체 안에서 부모들은 어떠한 활동을 하면서 학습해 가는가? 그리고 그 공동체 활동을 통해 그들의 육아방식은 어떠한 식의 변화가 생길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생각하는 자녀교육의 관점과 그 가운데 부모들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며 변모해 나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육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여성들의 취업확대와 핵가족의 증대로 인한 사회구조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박숙자 1990; 이성진, 1993; 조은 1985; 황한식 1993). 이 연구물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육아 현실과 육아에 있어서 지향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좋은 참고물이다. 이러한 연구물에 이어 육아에 대한 대안적인 형태로 공동육아의 개념이 나타

나면서 공동육아의 교육체계 및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실태 등 공동육아의 실제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춘 연구(김은주·권미량 2005; 이희현, 1996; 임재택·심미연, 2007; 임학규,2002)도 있다.

최근의 공동육아 연구들은 공동육아의 개념적 인식확대를 다루거나 보육교사나 학부모의 인식변화 및 정체성의 특징을 주목하여 다루면서 공동체 형성과정을 사회학적,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다룬 연구(김미란,2008, 김주현 2000; 류경희·김순옥,2000; 이창호,1998; 이부미, 1999; 임우연,1995; 장원섭 외,2010; 조윤경,2010; 차현진,1997; 한송이, 1998)¹⁾들이 있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공동육아의 교육과정 속에서 교사, 유아, 부모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운영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짜며 상호간 육아정보 및 지식을 교환하면서 상호간 이해를 증진시키고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논문에는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먼저 이부미(1999)는 공동육아 속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에 대해 교육적인 의미로 접근

1) 이부미(1999)는 공동육아 구성원들의 생활과 문화를 학습의 차원으로 이해하고 어린이와 교사간의 관계, 교사와 부모와의 관계 등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활동(별명과 반말, 나들이, 날적이, 마실)속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현상들에 대한 교육적 의미를 현상학적으로 해석했다. 류경희·김순옥(2000)는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개별 가족단위에서 또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가족의 육아문제를 가족 간의 연대를 통해 가족과 사회의 중간집단이라는 자생적인 집단형성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대안적인 가족생활이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보았다. 이창호(1998)는 개별 조합원들이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과정과 집단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관찰하여 공동육아협동조합의 구체적인 특성과 원리를 살펴보았다. 임우연(1995)은 산업화에 따른 여성인력의 증가와 가족의 구조, 기능의 변화로 생겨난 새로운 형태의 보육기관으로써 공동육아를 기술하면서 '부모 참여'의 측면을 강조하였다. 차현진(1997)은 공동육아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나들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교사와 유아들 간의 협력적인 상호 과정을 통하여 유아들이 발달해 나가는 과정을 기술하였다. 한송이(1998)는 부모들이 실제 인식하는 공동육아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그리고 간과하는 점 등을 분석하였다.

하였다. 그러나 공동육아를 대표하는 특징인 별명과 반말, 나들이, 날적이, 마실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는 잘 되어 있지만, 조합원들이 그 공동육아를 하면서 어떠한 학습을 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했는지에 대한 모습을 그려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창호(1998), 장원섭(2010)의 논문도 성인들이 공동체 속에서 참여하여 성장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으나 가족단위 차원에서 참여가족들이 어떻게 상호관계를 맺으며 학습해 나가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며 개인의 삶의 변화와 정체성 형성을 사회학적인 맥락에서 살펴보았을 뿐 학습의 맥락에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조합원들의 육아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지 못했다. 임우연(1995), 차현진(1997)도 공동육아협동조합에서의 부모 참여 과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운영되는 독특한 사회조직과 원리들을 간과한 점이 있다. 김미란(2008)의 연구는 공동육아에서 부모참여의 가능성과 한계를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 부모참여의 개념을 실제 사회적 맥락에서 살펴보았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부모들 간, 부모와 교사간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이에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연구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피상적으로 갈등상황에 대한 나열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는 구성원들의 모습이 적극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즉, 문제 상황에 대해 공동체구성원들이 나름대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제대로 표출되지 못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종합하면, 지금까지의 연구는 성인들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공동체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공동체 소속원으로서 정체성을 갖는 과정은 잘 드러냈지만, 그러한 활동으로 공동체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육아방식에 어떠한 식으로 피드백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다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연구자는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부모들이 공동체 안에서의 학습과정을 이해하고 성인들의 변화모습과 성장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

히,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의 내적변화를 살펴보고 그러한 변화가 그들의 육아방식에 어떠한 모습으로 피드백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공동육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지식을 형성하고 어떠한 학습 전략을 사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따라서 공동육아를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험과 학습을 드러내고 그 공동체에서의 조합원이 되는 과정 속에서 성장, 변화하는 모습을 학습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것은 의미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공동체적인 학습상황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성인학습자들의 학습을 보여주었다. 자신의 육아와 관련된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성인학습자로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으며, 공동체 속에서의 다양한 지식과 담론을 생산해내는 능동적인 성인학습자의 주체적인 모습을 교육학의 측면으로 재조명했다.

셋째, 이 연구는 사회학적인 개념으로 주로 쓰인 공동육아를 교육학의 관점에서 조망함으로써 공동육아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학습의 원리를 밝혀냄과 동시에 무형식학습으로 설명함으로써 교육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 일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체적인 성인학습자로 성장하기 위해 공동체에서는 무엇이 중요하고 어떠한 학습이 확대되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연구의 문제

본 연구는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부모들의 공동체 안에서의 경험과 그들의 학습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며 공동육아에서 육아방식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들의 공동체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실

제교육과정기획과 운영 및 본인의 육아철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동육아를 고민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경험에 대한 깊고 풍부한 기술을 하며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밝혀낼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공동체 활동으로 자신의 육아방식에 피드백 되는지를 밝혀내는 데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문제를 구체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육아 조합원들이 공동체의 존재가치와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 계기와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공동육아 조합원들은 공동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며 공동체에서의 참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셋째, 자기학습과정이 자신의 육아방식에 어떠한 모습으로 피드백 되는가?

3.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방법

연구자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부모들의 학습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며, 그 공동육아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변화된 모습과 그것이 그들의 육아에 어떻게 피드백 되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히, 성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성장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양적연구방법보다는 특정 집단을 '이해'하는 질적 사례연구방법이 더욱 더 적합할 것이다.

질적 사례연구는 실제 생활 맥락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그 의미를 연구

하고 그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석에 관심을 둘 때 유용하며, 단일 사례의 독특성과 복잡성에 대해 연구할 때 효과적이다. 이러한 질적 사례연구는 전체적(holistic)관점에서 실천의 문제에 접근하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의미 파악에 도움이 되며 관찰, 면담, 문서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질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S.B.Merriam,1997). 면담은 관찰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제보자의 생각, 의도 등에 대해 알고자 할 때 유용하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의 삶의 경험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잠정적인 가설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가설은 계속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반복하여 수정, 검증된다(Spradley, 1980). 이때 자료를 보다 포괄적, 거시적, 주관적인 맥락에서 통찰하는 해석의 과정이 연구에서 보다 중요하게 된다(조용환, 1999). 이렇게 볼 때 사례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다양한 삶의 양면을 깊이 살펴볼 수 있고 학부모의 학습과정을 살펴보며 학습자들의 학습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연구 방법으로 타당하다.

2) 연구사례개관

가. 은을 어린이집의 설립과정 및 운영방식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은을 어린이집은 공동육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공동육아에 대한 서로의 관심을 공유하면서 준비모임을 갖게 되었다. 공동육아에 대한 정보를 TV프로그램을 통해 접하고 아동교육에 대한 영감을 받아 1997년 12월에 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첫 모임을 갖게 되었고 공동육아에 관심을 가진 총 10명의 엄마들이 운영위를 구성하여 모임을 가진 후에 1998년 9월 달에 개원을 하게 된다. 그 다음해에는 공동

육아의 이념에 맞게 아이들이 자연을 벗 삼을 수 있도록 텃밭을 마련하였으며, 녹색연합과 함께 환경바자회를 열고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어린이 집에 대한 홍보를 지속하였다. 처음에는 한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가 개원했지만, 2000년에는 도시의 아파트에서의 생활에서 벗어나 보다 여유 있는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여 이사하였다. 그러나 이전을 하면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차질이 생겼으며 이 상황에서 조합원이 탈퇴까지 하여 힘든 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야유회와 체육 대회를 하면서 조합원들끼리 단합을 할 수 있었고 그 이후로 조합원이 충원되어 다시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었다. 2005년에는 지금의 터전에서 벗어나 더 넓고 여유 있는 터전으로 이전하기 위해 터전 이전 자금 확보방안(기본 출자금 500만원, 두 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한 출자금 할증 비율 30%결정)을 결의하였고 여러 지역을 물색하던 중 2007년 지금의 장소로 이전을 한다. 새 터전은 도심 주변부에 위치하여 개인 승용차가 없는 진입하기가 힘들지만, 터전 주변에는 논과 산이 있어 조용하고 평화로운 느낌이 있다. 이전을 한 후 새 터전 울타리 둘레에 나무와 꽃을 심어 주변을 단장하였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모래 놀이터를 만들었다. 그리고 TV 프로그램에 조합원이 나와 어린이집에 대한 소개를 하였으며, 조합원이 점차 늘어나고 가입비도 쌓이면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처우도 조금씩 향상되었고 어린이집 주변 가로등을 설치하고 터전 그늘막 공사 및 철봉, 미끄럼틀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집으로써의 모습을 점차 갖춰가기 시작했다.

은울 어린이집의 구성과 조직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부모가 조합원이 되어 어린이집의 설립과 운영 및 감독 등을 담당한다. 조합원은 어린이집에 본인의 자녀를 맡긴 부모이며, 2012년 현재까지 총 26가구가 조합원이며, 평균 나이는 30대 중후반이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가입비와 출자

금 보육료를 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이들은 대부분 선후배의 소개로 공동육아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인터넷이나 TV를 통해 접하게 되어 조합원이 된 사람도 있다. 조합원은 대부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졌으며, 맞벌이와 가정주부가 있지만, 맞벌이라 하더라도 둘 중 하나는 본인이 스스로 여유 시간을 낼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간소득은 가구당 평균 7000만 원 정도로 중산층이상에 해당되는 가족이 대부분이었다. 조합원들은 가구별로 출자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 출자금의 규모는 한 아이를 맡기는 경우 850만원이며²⁾, 탈퇴 시에는 반환받는다. 하지만 전체조합원수의 10%이내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출자금의 최고 90%까지 면제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체조합원수의 10% 이내에서 조합이 소재한 마을의 주민인 조합원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출자금을 최고 100%까지 면제할 수 있다. 한편, 보육료의 책정도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 구분하여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보육료가 감소한다. ³⁾

조합의 아동들은 4세에서 7세까지이고 총 30명이다. 공동육아는 통합교육이 원칙이나 대개 연령에 따라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방이 달라진다. 아이들은 연령에 따라 당실방(4세), 튼튼방(5세), 신통방통방(6세), 아리알찬방(7세)로 나뉘어져 있다. 각각의 방 아이들의 수는 8-9명이며 교사의 구성은 전일제 교사 4명, 반일제 교사 1명, 아이들의 주식과 간식을 담당하는 영양교사 1명이 있는데 이들은 이사회를 통해 선발되며, 공동육아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교사양성과정이나 원장연수를 마친 사람들이다. 교사경력 은 1명이 현재 6년차이고 나머지는 모두 3년 미만의 교사이다. 연령대는

2) 두 아이 이상을 맡긴 경우에는 아이의 수와 상관없이 출자금의 30%를 할증한다. 방과 후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출자금의 10%를 감면하며, 3년 이상 재직한 전직 또는 현직 교사가 아이를 보내는 경우에는 50%를 감면한다.

3) 은울 어린이집의 출자금은 850만원 가입비는 45만원, 보육료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보육료는 전국 어느 어린이집이나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된다.

20대에서 30대로 젊은 층에 속하며 유치원 자격증을 모두 소지하였다. 은을 어린이집 교사는 사단법인 공동육아 공동체교육에서 주관하는 기초교사 교육을 수료하여 공동육아 교사로의 정체성 및 보육교사의 기초경험을 습득한 다음, 현장에 투입이 된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교육정보를 공유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자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되고 있고 역할에 따른 대표교사, 영양교사, 방과 후 교사 등을 위한 교육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 경력교사에게는 전문가 육성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는 교육기간이 1년으로써 리더십 과정은 5년차 이상의 교사에게 자격조건이 있으며, 교육활동 심화과정은 3년차 이상의 교사에게 주어진다. 이렇듯 은을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상부조직의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교육 및 재교육, 심화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키워나가며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표 I -1> 2012년 교사 한해 교육일정

교육내용	일시	장소
현장학교과정(현장학교 1단계)	3월-6월	공동육아사무국
시설장교육 (보육사업안내지침서교육)	3월	시청 대강당
신입대표교사교육	3월 30일	공동육아사무국
평가인증 신입시설장교육	3월	서울여성플라자
도시농부학교	3월-5월	선사박물관 강당
지역소모임	4월, 6월	대전뿌리와 새싹

여름교사대회	7월 29일-31일	숙명여대 연수원
대동놀이교육	7월	공동육아사무국
세시와 절기교육	8월 27일	공동육아사무국
표준보육과정교육	9월 15일	시청대강당
지끈 공예 교육	9월	아이살림평생교육원
중부 워크샵	10월 7-8일	대전뿌리와 새싹
겨울교사대회	12년 1월 21-22일	서울여성플라자, 숙명여대

(출처 : 2012년 정기총회 자료집)

은을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은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이다. 대부분 맞벌이 부모들이 많아 오전 일찍 문을 열고 저녁 늦게 문을 닫는다. 만약 운영시간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조합원으로써 운영시간을 건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조직의 운영세칙은 조합원에 의해 결정, 검토되기 때문에 운영시간 문제는 현실에 맞게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

은을 어린이집의 조직은 총회와 이사회, 감사로 나누어지며, 부모대표로 결성된 이사회는 이사장, 교육이사, 홍보이사, 재정이사, 시설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조합의 조직은 설립초반에 공동육아연구원에서 마련해준 기본 지침에 골격이 되지만, 각 어린이집의 실정에 맞게 조직을 보완 또는 축소 시키기도 한다. 은을 어린이집의 조직구성은 1년에 2회 열리는 총회에서 결정된다. 즉 총회에서 이사회의 대표와 기획, 교육, 재정, 홍보이사를 선출하며 정관의 개정 및 각종 규정의 제정과 변경 추진하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각 기관의 이사로 구성되

어 있으며, 조합의 운영과 각 교육기관의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교사선발, 보육시간 결정, 어린이집 전세금에 필요한 출자금과 보육료 산정, 운영규칙, 회계내역 공개, 일일교사 참여, 소식지 발간, 신규조합원 모집 등 운영 전반을 책임진다. 이사회에서 논의된 회의내용은 조합원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사회에 조합원 및 교사들도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기획, 교육, 재정, 홍보 모듬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획모듬은 행사준비에서부터 진행에 이르기까지 행사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준비한다. 교육모듬은 교육이사를 중심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조합원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과 관련된 행사를 계획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재정모듬은 출자금과 조합비등을 관리하며, 다양한 행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홍보모듬은 소속 조합원들이 소식지 편집 기획 및 제작, 홈페이지 관리, 각종 행사시 홍보지와 플래카드, 거리 선전을 하며, 이사회 총회 시 보고서 작성 등을 맡는다. 또한 방모임이 있다. 방모임은 통합방모임과 개별방모임을 번갈아서 하고 있다. 개별 방모임 때는 방별로 한 달 간 생활한 것에 대해 부모와 교사가 이야기 나누고 통합 방모임 때는 전체 조합원이 나눠야 하는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의논한다. 각 방모임 때는 방장이 먼저 안건을 수렴하고 진행하는 형태이다. 이 방모임은 조합운영과 교육에 관한 기본논의, 조합원 상호 친목도모와 이해, 조합원/교사간의 인식공유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방모임에는 자녀의 부모님 모두가 참석하는 것으로 원칙을 삼고 있으며, 그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나. 은울 어린이집의 프로그램

어린이집의 하루의 흐름은 8시에 등원시작, 9시에 오전 간식, 10시 30

분 나들이, 12시 점심식사, 16시 전체모임, 16시40분 오후 간식, 17시 오후활동 17시부터 19시까지 퇴원으로 마무리를 한다. 어린이집의 기본 교육원칙은 자연 친화와 공동체적 삶을 목표로 계획되어 있어서 인지교육이나 특기적성교육을 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같은 생활리듬으로 활동을 한다. 오전에 등교를 하면 아이들은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논다. 이 시간에는 주로 나들이 가기 전 오전시간에는 종이접기나 책보기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린이집 앞마당에 있는 놀이터에 나가서 놀기도 한다. 그리고 10시에는 아침모임을 하는데 이 시간에는 하루를 함께 시작하는 의미로 노래 부르기, 교사와 아이들 서로 인사하기와 하루 활동 정하기, 약속 정하기 등을 방별로 가벼운 아침 간식이나 차를 마시는 모듬 형태로 진행한다. 그리고 나들이를 어디로 갈 것인지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정한다. 아이들은 이 시간을 통해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들어주고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게 된다.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는 나들이를 간다. 나들이는 어린이집의 기본적인 교육방침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프로그램이다(차현진, 1997). 나들이 장소는 주로 아이들과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결정된다. 간혹 아이들의 의견이 나뉘지는 경우도 있어서 교사들은 의견조율에 시간을 할애하는 때도 있다고 한다. 나들이는 시간기준으로는 일상적인 나들이와 가끔 가는 나들이로 나눌 수 있고, 장소기준으로는 자연 나들이와 사회나들이로 나눌 수 있다. 일상적인 나들이는 주로 어린이집 가까이 있는 산이나 동네를 걸어 다니면서 자유롭게 본인이 하고 싶은 놀이를 하는 것을 말한다. 나들이는 대개 통합으로 이루어지거나 아이들의 연령 특성과 장소선택에 따라 각 방 나들이나 두 방 나들을 실시하기도 한다. 나들이 준비시간은 10~20분 정도이고, 오고가는 시간은 30분 정도이며, 목적지에서 40분정도 놀이시간을 갖는다. 나들이 길에서 만나는 팽이밥, 찢레순, 며느리밀씻개, 쉬영(싱아) 맛보기 활동이나 나들이와 연계하

여 오후활동이나 자유놀이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먼 나들이는 한두 달에 한번 어린이집 전체가 한 장소로 점심을 준비해서 다녀오는 활동이다. 주로 차를 대여해서 가고, 가까운 곳일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한다. 나들이가 끝나면 점심식사를 한다. 메뉴는 각종 잡곡밥을 비롯하여 김치 등의 밑반찬부터 고구마 경단, 주먹밥, 간장떡볶이, 조랭이 떡, 소보루빵, 녹두죽, 야채샌드위치 등의 간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식사시간에는 아이들이 본인이 먹고 싶은 만큼 가져다가 먹으며, 마음에 맞는 아이들끼리 모여 얘기하며 식사를 한다. 오전 일과로 피곤해 자고 싶은 아이들은 방안에 들어가 이불을 펴고 자고 잠잘 생각이 없는 아이들은 계속 하던 놀이를 지속한다.

오후활동으로는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활동들을 사전에 준비하여 실행하는 시간으로, 교사의 교육적 의도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대체로 오전 나들이의 연계성, 아이들의 관심도, 활동 영역들의 균형감 등을 고려해서 세시와 절기에 맞는 활동계획을 세운다. 특히, 음악, 미술, 신체 표현 등 문화예술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일회적인 활동으로 끝나지 않고 재료를 오래 접하면서 그 특성을 이해하고 다루어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지도록 한다. 주로 하는 활동으로는 젓은 그림, 밀가루반죽놀이, 그림그리기, 종이접기, 노래배우기, 율동, 몸 표현활동, 전래놀이, 공동체놀이, 바느질, 베짜기(수직), 문자놀이, 요리활동과 세시절기에 맞는 여러 가지 활동 등이 있다. 자유놀이는 아이들이 모두 등원하기 전인 오전 10시 이전, 하루 일과 속에서 활동사이사이, 그리고 오후 활동이 끝난 이후에 자유 놀이가 이루어진다. 공동육아에서는 교사의 개입 없이 아이들 스스로 꾸려가는 자발적 놀이를 교육활동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이들은 놀이를 반복하면서 새로운 놀이를 만들고, 규칙을 정하기도 하고, 교사와 함께했던 활동을 더 지속하기도 한다. 교사는 특별히 안전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놀이에 참여하며, 이때 교

사는 아이들의 놀이를 잘 관찰하여 또래관계 및 개별적 특성을 이해하게 된다. 오후활동이 끝나는 5시 30분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끝나는 시간 까지 자유롭게 귀가를 한다.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 부모님들은 급히 가기 보다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에 함께 참여하거나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함께 하기도 하며 교사, 다른 부모들과 아이와 어린이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놀이감 정리, 청소 등을 돕기도 한다.

<표 I -2>은울 어린이집의 하루일과

시간	활동	내용
08:00	등원	교사가 돌아가면서 시차제 출근
08:00~09:00	자유놀이	정적인 활동(종이접기, 책보기)
09:00~09:20	아침간식	아침을 먹지 못한 아이는 떡, 볶음밥 등 요기가 될 만한 간단한 것으로 식사
09:20~10:00	자유놀이	간식 시간 후 쉬면서 놀이를 함
10:00~10:30	아침모듬 및 나들이 준비	1.자유놀이 분위기를 정돈하고 하루를 시작 2. 하루일과중 특별한 내용을 알리고 나들이 계획 3. 양말 걸옷입기, 화장실 가기, 신발신기
10:30~12:00	나들이	뒷산, 텃밭, 운동장, 초등학교
12:00~13:20	점심	양치질하기, 자유놀이
13:20~13:40	청소	아이들과 각방, 모두의 방을 청소
13:40~16:00	낮잠과 휴식	옛이야기 듣기, 낮잠 자기 낮잠시간에 교사들은 날적이를 쓰거나, 회의, 토론 등의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
16:00~16:40	전체모임	몸풀기와 노래 배우기, 강강술래

16:40~17:00	오후간식	정성을 담아 직접 만든 간단한 음식
17:00~17:30	오후활동	교육과정에 의해 진행
17:30~19:00	자유놀이 또는 집으로	교사가 돌아가면서 시차제 퇴근

(출처 : 2012년 정기총회 자료집)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전통문화가 생활 속에 녹아 있는 것을 추구하며 자연과 더불어 계절에 맞는 삶, 우리 문화가 전승되는 삶,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생활방식으로 절기행사와 세시풍속에 의미를 두고 그에 따른 놀이와 음식문화를 즐기므로써 우리 민족의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 있다. 나들이 길에선 자연이 바뀌는 여러 가지 변화를 보면 또 아이들은 계절의 변화를 온 몸으로 맞이한다. 찔레순이 나오면 찔레순을 따먹고 팥이밥이나 싱아 잎을 뜯어먹어 보고 꿀풀에서 꿀을 쪽 빨아 먹기도 한다. 나들이를 통해 자연을 바라보고 느끼고 만져보는 이러한 많은 활동들이 아이들에게는 조금도 어색한 일이 아니다. 자연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아이들과 하는 모든 절기와 세시활동도 우리가 누리는 자연 속의 일부인 것이다. 세시활동을 통한 놀이문화도 어린이집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어린이집에서 세시 때 해왔던 놀이들이 계절별로 어느 정도 일상화되고 있다. 대동놀이나 씨름, 줄다리기, 산가지 놀이, 옷놀이, 까막잡기 등의 놀이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자연스런 생활의 부분이 되어 해가 갈수록 틀이 잡히고 있다. 절기에 맞는 먹거리도 공동육아에서는 중요하여 절기마다 해먹는 진달래화전이나 썩개떡, 식혜 등은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표 I -3> 영역별 활동계획

월	놀이마당	생태놀이	노래마당	음식 만들기
1월	설(제기차기) 수건돌리기	산가지 놀이	굴렁쇠 겨울바람	타래과
2월	대문놀이	솔방울 농구	송별 가 해야 해야	만두 빚기
3월	다리세기 손치기발치기	고사목 관찰하 기	작은 동물원 예쁜 아기 곰	된장 담그기 떡꼬치
4월	무궁화 꽃이 피었습 니다. 남생이타령	나뭇잎 퍼즐	진달래 제비꽃	진달래 화전 딸기우유
5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개고리 타령	다양한 색깔 찾기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달팽이	모양 쿠키 만들기 매실청 담기
6월	씨름놀이(돼지씨름, 영덩이 씨름) 땅따먹기	숲에서 만난 나비	단오절 액 맥이 타령	앵두화채 샌드위치
7월	고사리 꺾기 투호놀이	박쥐와 나방	즐거운 여름 매미타령	수박화채 오이장아찌담기
8월	덕석몰이 구슬치기	나의 반쪽 그리기	잠자리 멧쟁 이 토마토	팔빙수 감자전
9월	한가위놀이(강강술 래)	자연물 만다라	추석날 산도깨비	송편 꼬마김밥
10월	꼬마야 꼬마야 (긴줄넘기)	하늘 걷기 (뱀눈 되어보기)	가을길 야기다람쥐 꼬미	김치 담그기 오미자청 담기
11월	우리 집에 왜 왔니 얼음땡	낙엽 멀리 던지기	시장잔치 꽃시계	유자청 만들기 고구마 샐러드
12월	딱지치기	손에도 눈이 달려 있어요.	동짓날 딱지 따먹기	동지팥죽새알심 크리스마스케이 크만들기

(출처 : 2012년 정기총회 자료집)

3) 연구절차

가.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은 크게 공동육아연구회에서 발간한 서적 및 월간 발행되는 소식지, 공동육아 인터넷 사이트 등을 수집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관찰 및 비공식면담,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육아를 이해하기 위해 공동육아와 관련된 서적뿐만 아니라 공동육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공동육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문서와 시각자료를 수집하였다. 문서자료는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홈페이지(<http://www.gongdong.or.kr>)를 통해 자료를 얻었으며, 특히 지역별로 만들어져 있는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서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또한, 공동육아를 주창한 초기 멤버들이 집필진이 되어 쓴 책을 참고하였다. 추가적으로 연구자가 공동육아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얻은 책자도 공동육아어린이집의 1년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였다. 그리고 공동육아 어린이집인 은울 어린이집 홈페이지(<http://cafe.gongdong.or.kr/tjfriends>)에서도 조합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각 모둠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과 어린이집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한 알림마당, 그리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홈페이지에 있는 글을 읽으면서 조합원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었고 어린이집의 전체적인 사업 및 프로그램 진행사항 등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홈페이지에 표출시킴으로써 현재 대두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공동육아와 친숙해지기 위한 과정이자

조합원들의 분위기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둘째,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성인 학습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의 양상을 살펴보는 데 있다. 이점에서 학습자의 진솔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러한 것에만 의지해서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자는 참여관찰을 실시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먼저 공동육아어린이집인 은을 어린이집의 교사와 연락하여 어린이집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소개받았다. 어린이집 교사는 연구자를 공동육아어린이집을 방문하는 학부모 대하듯 여러 자료를 건네주며 어린이집에 대한 소개를 해주었고 어린이집에서 이뤄지는 총회 및 방모임, 모둠 모임, 이사진 모임 등의 일정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는 어린이집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육아의 전체적인 흐름과 방향을 이해할 수 있었고 현재 공동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이사진의 소개를 받을 수 있었다. 연구자가 공동육아 조합원들을 만나기에 앞서 어린이집 교사를 먼저 만나 예비면담을 실시한 이유는 우선,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조합원들이 어린이집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 그리고 공동체성을 이루며 생활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학습하는 양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연구자는 2011년 10월 7일에 있었던 교사와의 면담과정에서 몇 명의 제보자를 소개받았고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보고 학부모들의 공동체성을 이해하고자 방모임, 모둠모임, 이사진 모임, 총회 모임에 대한 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다. 심층면담은 교사가 선정해준 4-5명의 제보자 중에서 한 명과 첫 심층면담을 실시했다.

스프레들리(Spradley, 1980)는 좋은 제보자의 조건으로, 그 지역 혹은 집단에 오랜 연고를 갖고 있어서 그 문화를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 비학술적이고 토속적인 언어를 사용하되 주관

적인 분석을 하지 않는 사람을 들고 있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주제에 가장 적절한 제보자를 찾는 과정이 연구의 신뢰도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연구자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제보자를 선정하였다. 첫 제보자는 그 당시 은울 어린이집의 이사장임과 동시에 그해 어린이집을 졸업하는 선배 조합원이기도 하다. 나머지 심층 면담자 선정은 2012년 2월 18일에 치룬 정기총회에서 참여관찰을 하면서 활발히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며 참여한 조합원들 가운데 연구자가 임의로 6명을 선정하여 인터뷰를 요청했다. 이러한 제보자 선정 방식이 갖는 한계가 우려되어 연구자는 평일에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찾아가 일일 아마활동을 하고 있는 조합원의 모습을 지켜보며 시간이 허락하는 데로 비공식 면담을 진행할 수 있었다. 면담은 자연스러운 대화 형식이었기 때문에 따로 녹음이나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면담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 연구노트에 기록하여 그들의 생각을 최대한 담아내려고 노력했다. 또한, 방모임이나 모둠모임 그리고 매일 저녁 아이들을 데리러 오시는 조합원들을 수시로 만나 얼굴을 익힌 후,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조합원들을 개인적으로 접촉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면담을 할 조합원을 선정함에 있어 공동육아의 방침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공동육아를 하기로 마음먹었으나 그 교육이념과 프로그램 등에 다소 의견을 달리하는 조합원들을 찾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보이는 것을 꺼려하는 조합원도 있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 중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혼자 생각했던 것인데 이런 생각을 외부 사람에게 드러내기가 꺼끄러운 것도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실이 공동육아 조합원에게 전해졌을 경우 느끼는 부담감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구자는 되도록 많은 조합원을 예비면담을 하되, 그중에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조합원을 따로 선정하여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조합원과의 면담은 처음에는 비구조화 면담으로 시작했다가 그것을 토대로 이끌어 낼만한 사항이 있으면 좀 더 깊은 질문으로 발전하기 위해 일정한 질문의 계획을 세우고 질문방식과 순서에 융통성을 보이는 반구조화된 질문(semistructured question)을 사용했다. 제보자는 총 11명이며, 2011년 10월 22일을 시작으로 2012년 2월 27일까지 총 14회의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나, 그 이후에 논문의 내용을 보강하고자 7월 10일과 7월 24일에 몇몇 제보자들과 1-2회 정도 더 만나 실시하였다. 한 번 만날 때마다 평균 1시간 정도 면담하였으며, 면담 내용은 제보자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하여 이후 분석 및 해석에 사용하였다. 처음에는 일대일 심층면담을 계획했으나 때로는 면담시간이 맞지 않아 2인 이상의 면담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또한, 추가적인 면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과 장소 여건상 따로 만나지 못했고 전화상이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제보자와의 이러한 면담을 통해 공동육아에 참여한 부모들이 구성원들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호작용으로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했다. 특히 공동육아 공동체에서 구성원들은 어떤 변화를 겪었고 무엇을 학습했는가를 면담을 통해 밝혀낼 수 있었다.

<표 I-4> 제보자 인적사항

성명	나이	성별	직업	학력	자녀	공동육아 경험
임수정	38	여	사무직	대졸	아들(7세), 딸(5세)	2년
이효진	35	여	전업주부	대졸	아들(5세), 아들(3세)	2년
최아영	40	여	연구원	대학원졸	딸(6세), 딸(3세)	2년

허지혜	38	여	연구원	대학원졸	아들(9세), 아들(7세)	4년
윤인선	38	여	사무직	대졸	딸(7세), 아들(4세)	2년
김동률	38	남	회사원	대졸	딸(5세)	1년
정인혜	36	여	전업주부	대졸	딸(6세)	2년
김태효	39	남	연구원	대학원졸	딸(8세), 아들(5세)	4년
최수희	35	여	교사	대졸	딸(9세), 딸(7세)	5년
윤 구	35	남	연구원	대학원졸	딸(5세)	1년
최현을	38	남	한의사	대졸	아들(7세)	3년

* 제보자의 성명은 가명처리 함

나. 분석 및 해석

자료 분석은 문서자료와 심층면담자료의 분석을 병행하였다. 먼저 공동육아 어린이집과 관련된 문서자료 및 인터넷 사이트의 내용을 수집하였고 참여관찰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비공식 면담자료를 토대로 예비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프로그램과 내용 및 교육이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예비분석을 토대로 영역 분석(domain analysis)을 실시하여 의미 있는 주제어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를 통해 심층면담을 위한 질문과 제보자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주제어를 중심으로 은을 어린이집에 1년 이상 아이를 맡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조합원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유하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부분 하루 면담을 할 때 1-2차례 이루어지고 어린이집 속성상 일정 시간이 되면 조합원들을 어

린이집에서 다시 볼 수 있기에 면담한 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제보자와 공유하면서 확인받을 수 있었다. 대부분의 면담은 제보자의 동의 아래 녹음을 하였으며, 면담이 끝난 직후 바로 전사를 하였다. 전사한 내용은 수차례 정독하면서 반복되고 의미 있는 주제어를 찾아내고 범주화하였다. 연구자는 이 과정에서 공동육아가 개인들의 육아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추가적인 질문지를 바탕으로 면담을 실시했고 이에 대한 분석을 다시 시도하였다. 자료가 누적되면서 체계적으로 하위범주를 분석해 들어가는 분류분석(taxonomic analysis)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분류분석은 본 연구의 전체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일이기도 했다. 위의 작업은 2012년 2월, 3월 두 달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분석과정에서 부족한 자료들은 다시 수집하였으며,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때에는 제보자들에게 전화나 이메일 또는 직접 만나 다시 질문하여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였다.

해석 작업도 자료 분석과정과 함께 이루어졌는데, 자료를 분석하면서 의미 있는 해석들은 주로 연구노트에 기록해 두었다. 분석 이후에 이루어진 해석과정에서는 이전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해석들을 다시 읽어가며 재해석함과 아울러, 분석결과들을 해석하여 종합적인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해석 작업은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성인들이 변화해 나가는 모습을 조망해보며 공동육아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학습의 다양한 양상을 그리는 일이기도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공동체성의 의미

1) 공동체의 개념 및 특성

공동체의 사전적인 의미는 “운명이나 생활, 목적 등을 같이하는 두 사람 이상의 조직체(고려대 한국어대사전)”라 하였다. 그러나 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각종 사회적 현상과 이데올로기와 결부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공동체의 개념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언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테면 회사를 공동체라 일컫는가 하면 국가를 국가공동체로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포프린은 노동조합, 회사, 직업집단, 학자와 군대, 전문가집단까지도 공동체로 지칭하는가 하면 미국에서는 중국인촌 Chinatown, 한국인촌 Koreatown과 같은 도시의 인종정착지역도 공동체로 부르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들이 수도원, 교도소, 정신병원처럼 외부와의 접촉이 통제된 총체적 제도(total institution)를 공동체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Poplin, 1979, 74-44, 강대기, 2001 재인용). Hillery(1955)는 공동체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지리적 영역으로 보았으며 공동체를 “일정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 하나의 혹은 그 이상의 부가적인 공동의 유대를 통해 사회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고 정의”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공동체는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로 원거리에 있어도 상호접촉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공동체의 지리적 근접성의 중요성은 약화되고 있다. 이에 버나드(Bernard, 1973)는 지역적인 특성보다는 개인적인 친밀감, 사회적 응집력, 정신적인 관여, 연속성 그리고 감정적인 깊이 등을 공동체의 여러 가지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공간적 근접성과 상호접촉의 기회가 높은 물리적 조건을 활용해 공동체를 구성하려는 시도나 생활 영역 가운데 주된 관심사 한두 가지를 공동이해의 기반으로 해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경향이 대두가 되고 있다(신명호 외, 2000). 즉 이러한 현상은 특정한 지역을 기반하지 않은 가상공간에서의 공동체의 형성가능성을 뒷받침해 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사회의 공동체는 “어떤 지역이나 장소를 함께 공유하는 물리적 환경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친밀감이나 소속감을 느끼며 행동이나 목적을 같이 하는 집단”(이영애, 2007)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이처럼 다양한 공동체의 의미를 명료화하기 위해 Hillery(1955)는 1910년대부터 2015년대 초반 사이에 행해진 공동체 연구에서 공동체의 구성요소를 다음의 세 가지로 분석하였다. 첫째, 지리적 영역(geographic area), 둘째,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셋째, 공통의 연대(common ties)였다(Hillery, 1955).⁴⁾ 힐러리의 이러한 발견은 다음의 세 차원의 특성을 갖고 있다. 첫 번째 구성요소인 지리적 영역은 과거 교통,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환경에서 공동체를 출현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이러한 점에서 공동체는 그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으로 발전했으며, 다른 문화를 접하지 않은 폐쇄성을 띄기도 한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공동체는 해체의 과정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의 구조적 형태는 변화했지만, 인간들이 추구하는 공동체의 기본적인 기능, 즉 생존을 위한 욕구충족과 자아를 실현하려는 개인들의 노력은 지속되어 왔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고독감을 달래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타인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공동체를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키고 자신의 표현하는 활동무대로 생각한다. 둘째는 사회적 상호작용

4) Hillery가 분류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범주는 (1)지리적 영역에 관한 특성, (2)지리적 특성 외의 사회적 공유특성, (3)사회체계에 관련된 요인, (4)개인의 특성, (5)사회적 태도, (6)사회적 관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6개의 범주들 중 첫 번째 지리적 특성과 두 번째의 지리적 특성 이외의 사회적 공유특성은 (1)공통의 목적과 규범 및 수단 소유, (2)공통된 생활양식, (3)자급자족, (4)동류의식 등에 관련된 것이었다(강대기, 2001).

용이다. 모든 공동체는 인간과의 만남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의 바탕이 되는 것은 인간적인 상호작용이다. 농경사회의 공동사회가 일차적 관계로 일반적이었으나 전문화되고 도시화된 산업사회에서처럼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약과 규칙에 따라 형성된 사회가 이차적인 관계가 지배하고 있다. 초기의 공동체 연구자들은 이러한 도시화의 이익사회를 공동체의 해체로 보았다. 그러나 도시생태학자와 기능론자들은 사회 단위들 간의 기능적 해체를 공동체로 보았다. 이렇듯 이들 접근에는 공동체의 개념에 대한 다른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공통된 가정은 사회현상이 인간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공동체 차원은 공통의 연대이다. 이는 지리적 상황조건과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공통의 연대는 구체적으로 개인이 집단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우리라는 감정'과 이웃들 간에 서로 지켜야 할 도덕과 행동규범, 집단적 상징과 의미체계, 그리고 집단이 지향하는 궁극적 가치체계 및 종교적 신념들을 의미한다(강대기 2001). 이러한 공동체의 세 가지 구성요소는 독립된 속성이 아니라 상호 연관된 하나의 개념체계이다. Westheimer(1998)는 공동체에 대해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논의한 것을 정리하여 공동체의 구성요소로서 상호작용과 참여, 상호의존성, 공유된 이익과 신념, 개인적 관점에 대한 관심, 의미 있는 관계성 등 다섯 가지로 요약하였다. 이 다섯 가지 구성요소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원들이 행동을 할 때 함께 모이는 기회를 자주 갖는다. 둘째, 구성원들의 모임과 행동이 서로의 필요성과 헌신에 기초하고 있다. 셋째, 구성원들은 공동의 목표에 대한 헌신, 관점,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넷째, 개인적 차이나 소수의 견해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다섯째,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지속적인 배려의 관계에 대한 헌신을 반영한다. 윤영민(1999)은 공동체의 구성요소로서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 조건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객관적 조건으로써 첫째는 친숙함(familiarity)이다. 공동체내에는 많은 사회적 연

결망이 발달하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활동적인 성원들은 널리 알려지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 친숙함이 존재하게 된다. 둘째는 안정된 관계(stable relationship)이다. 성원들 간의 관계가 불안정하고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으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 셋째는 질서(order)이다. 공동체내의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가치와 규범이 있고 또 이를 어길 시에는 그에 따른 제재수단이 존재한다. 주관적인 요소에는 첫째로 정서(feeling)가 있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가지며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 애정을 느낀다. 둘째는 의식(consciousness)이다. 공동체 구성원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 이러한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인 조건 위에서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것은 유대라는 형태로 표현된다(윤영민, 1999). 또한 Maclver는 공동체 성립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우리감정(we-feeling), 역할감정(role-feeling), 의존감정(dependency-feeling) 3요소로부터 만들어지는 주관적 조건으로서의 공동체 감정(community sentiment)과 사회적 응집과 지리적 범역에 관한 객관적 조건으로서의 지역성이라고 하였다(류경희 1999 재인용).

이상과 같이 공동체의 개념을 종합하여 보면, 심리·정서적 안정과 유대를 충족하는 정서적 기능과 의식적 공유를 지향함과 동시에 공통의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출발하여, 상호작용과 문화의 공유를 통해 공통의 정체성을 수립하고 있다면 공동체로 정의하고자 한다.

2)공동체의 구성과 원리

공동체는 단순한 개인들의 총합이라고 말할 수 없다. 개개인들이 일정한 목적에 따라 질서와 규칙을 가지고 하나의 조직처럼 작용하지 않으면 공동체라 할 수 없다. 공동체는 개개인들의 공통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며 그 안에서 적절한 역할분담과 과제와 기능을 수행하며 나아간다.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를 향해 모든 구성원들은 역할을 분담하며 나아간다. 그러한 역할분담으로 공동체는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할 수 있다. 즉 공동체는 개개인들이 능력과 소질에 맞는 과업을 주고 큰 과제를 협력하여 해결하기 때문에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성취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적인 역할분담으로 개인들의 능력은 양적으로 합해질 뿐만 아니라 서로 보완을 하여 실력발휘를 함으로써 그 효과는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확대되어 공동체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전체 공동체의 목적은 개개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두 담기가 힘들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의 협의를 통해 공통의 의견을 끄집어낸다. 이러한 과정은 공동체 내에서 일정한 질서와 규칙에 의해 이루어진다. 보통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위임받은 대표자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공동체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의견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대표자들을 통해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된다. 이러한 점에서 공동체에서는 다양한 행동을 정리할 수 있는 규칙이 존재하며 공동체 안에서의 구성원들은 상하의 구조를 가짐으로써 질서정연한 공동체를 유지하게 된다. 즉 공동체에서는 통제하고 명령하는 구성원이 있으며 명령을 준수하고 집행하는 구성원도 있게 된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는 질서와 규칙에 의거 구성원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며 구성원은 그에 따른 책임과 공동체의 한 소속원으로서의 권리도 갖는다.(허창수, 1996:33-41)

공동체는 개인과는 달리 성장 발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쌓아둔 토대위에 새로운 가치가 추가되는 모습을 보인다. 공동체는 개인보다 더 오래 존속하기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문화를 유지하며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는 세대들을 연결시키고 다시 공동체의 전통은 과거와 현재를 미래와 연결시킨다. 이 점에서 공동체의 이념과 가치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조금씩 변화할 수 있으

며, 과거의 이념과 가치는 현재 구성원들의 정체성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며 그것은 또 미래 세대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한 개인들은 그 공동체의 문화와 전통을 이어받고 동시에 참여의 과정 속에서 구성원과의 의미협상을 통해 공동체는 유지 및 발전하며 개개인도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 (Study by the Group of Experts on “world Economy and Social 2001:35-40).

2. 공동육아 연구

1) 공동육아의 등장과 역사

공동육아는 가족형태에 있는 열린 시각 속에서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을 하나의 대안적인 가족형태로 받아들이면서 서서히 발전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가족 개념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관념에서 벗어나 유사한 교육신념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 간에 다양한 형태로 공동체를 이루려는 시도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시도되었다(류경희, 2001).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1990년대에 출현하였고, 일정한 숫자의 가정이 출자금을 통해 조합원을 형성하여 어린이집을 설립, 운영하는 육아방식이다. 공동육아는 핵가족과 맞벌이 가족의 증가로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지 못한 문제에 기인한다. 그 가족들은 주변의 아는 사람이나 기존의 보육시설에 의존하면서 육아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가족과 친족 내부에서의 육아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 열악한 사회적인 육아 환경에 대한 불만들을 경험하게 되면서(류경희, 1999), 육아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공동육아 협동조합이다.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1978년에 만들어진 ‘해송어린이 걱정모임’에서 시

작되었다. 당시 유신정권을 비판하며 사회변혁을 꿈꾸던 대학생들이 주체로 하여 만들어진 이 모임은 유신시대의 권력에 의해 완전히 장악된 교육의 틈바구니에서 저항의 싹을 키울 최소한의 가능성을 찾고자 ‘해송보육학교’를 설립했다. ‘해송보육학교’는 낮 시간 동안 비어있는 철거민촌 야학의 천막 교실 안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학교로써, 야학 학생들이 검정고시와 노동현장에서의 투쟁 이외에 나아갈 수 있는 전문성을 갖는 길을 하나라도 새롭게 열어보자는 시도에서 만들어졌다. ‘해송보육학교’는 검정고시와 노동야학을 구분하지 않고 서울지역의 야학에서 추천받은 이십 여명의 야학 출신자중 자기소개를 하는 글쓰기와 적성검사, 면접을 통해 12명을 선발하였다. 전공과정과 기초교양에 음악, 미술, 율동 등의 실기까지 포함된 2년간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12명의 학생을 위해 20여명의 교사가 동원되었다. ‘해송보육학교’는 2년 과정의 2기생들을 뽑아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다가 2기생들이 졸업한 1981년 말에 문을 닫았다(정병호 1994).

1980년 여름에는 신림동 난곡의 철거민촌 산등성이에 해송 유아원이 섰다. 해송 유아원에는 8명의 해송 보육 학교 출신 교사들이 160명의 취학 전 어린이들을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 교육하였으며, 좀 더 많은 가난한 집 아이들을 빠른 시일 내에 부유한 아이들과 동일한 출발점에 세우겠다는 미국의 헤드 스타트 방법론을 빌렸다. 그러나 이러한 자생적 교육 운동 역시, 1980년 새마을 유아원으로 시작된 제도화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도에 편입되면서 해송유아원은 시립 새마을 유아원으로 흡수되어 YWCA에 의해 위탁 운영된다. 해송 유아원을 잃은 지 1년 만에 재건된 ‘어린이 걱정 모임’에서는 해송 유아원의 실패를 눈에 띄는 공간 확보와 대량 교육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학교 형태의 유아원을 세우게 되어 아주 쉽게 지배 권력에 흡수되어 버렸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이부미, 2001).

그 후 이들은 1984년에 종로구 창신동에 해송 아기둥지를 설립하게 된

다. 해송 아기등지는 문화적 이질감을 줄이기 위해 가난한 지역 아이들의 가정환경과 비슷한 교육 환경을 만들고, 새마을 유아원이 회피하는 더 낮은 연령층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종일 보육 형태의 생활교육을 추구하게 되었다. 즉 더 이상 제도 교육의 흉내를 낼 필요가 없는, 지배 권력 측에서 보아도 도무지 탐낼 일이 없는 초라한, 그러나 실속 있는 일거리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래서 무허가 주택 밀집 지역 안에 작은 마당이 있는 집을 전세로 만들어 그 안에서 자연과 일과 놀이가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보육활동을 하게 된다. 아기 등지는 도시 빈민 지역 기혼 여성의 임금 노동 취업이 늘어나고 공동체적 연대 의식이 약화되어, 아이를 돌봐줄 이웃이 줄어든 사회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80년대 후반부터 여러 곳에서 만들게 된 지역 사회 탁아소의 한 모델이 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로 1990년대에 임시 휴원을 하게 되었고 이후 해송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사단법인 공동육아연구원이 1998년에 해송 어린이 등지 공동체라는 지역 내 방과 후 학교를 만들어서 저소득층 공동육아의 한 모델로 새로운 출발을 하였다(정병호, 1994)

1990년에는 우리 사회에서 영유아 보육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던 때로 새로 만들어지는 영유아 보육법에 대한 문제를 알리기 위해 '탁아제도과 미래의 어린이 양육을 걱정하는 모임'을 발족하여 다양한 토론회와 책을 발간하였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행정적인 편의만을 중시한 제도화 과정을 거쳐 계층 차별적인 보육 정책과 사회적 육아의 영리화, 관료화의 문제가 근간을 이루는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 이에 더 이상 걱정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공동육아연구회'로 이름을 바꾸고, 구체적인 공동육아의 터전을 직접 만들기 시작하였다. 공동육아연구회는 1994년 신촌 지역에 공동육아 협동조합 길잡이 모임을 만들었고 반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9월에 개원을 했다. 공동육아연구회는 1996년 6월 사단법인 공동육

아연구원으로 정식 발족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2012년 현재 63개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고 방과 후가 운영되는 어린이집이 14군데이며,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지역 방과 후를 6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2)공동육아의 이념

공동육아는 저소득층 위주의 획일적인 보육정책과 민간보육시설의 문제와 형식적인 학습의 구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대안적인 형태로 시작되었다. 기존의 보육은 공동육아는 공동육아 부모들이 지향하는 것도 ‘나’ 중심의 이기주의에서 ‘우리’라는 공동체이며, 아이들의 지식적인 면보다도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자연과 함께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생활경험을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유기농을 먹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아이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공동육아 안에서 성인들이 공동체적 생활양식을 만들면서 학습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아이양육뿐 아니라 부모들의 참여를 통한 육아공동체, 생활공동체의 실현이 중시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동육아는 아이를 함께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의 삶에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김미란 2008).

공동육아는 아동의 성장을 돕는 일을 부모만이 아니라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의 부모는 물론 육아에 관련된 각종 조직과 집단이 육아의 책임 담당자가 되어 우리 사회의 미래 성원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공동육아 개념의 핵심이다(조형, 1996). 여기에서 ‘공동’이란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인 공동이고, ‘협동’도 기계적인 분업이 아닌 ‘참여적’협동을 뜻한다. 즉, 가족과 사회가 공동으로 육아의 책임을 지며, 양자의 적

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미래 사회의 주인공들을 양육하는 것이다. (조형,1996)

공동육아의 개념은 내용적으로는 몇 가지의 이념적 요소를 내포한다. 첫째로, 민주주의 시민 개념이다. 부모와 아동은 모두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공유하고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체이다.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은 성인과 동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이념에 보다 가깝다. 둘째는 미래 지향성이다. 육아는 미래의 성인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가지고 육아를 해서는 안 되며, 미래의 계획과 구상이 있어야 한다. 공동육아는 계획된 미래 사회의 전체적 구도를 전제하고 실천하는 행위이어야 한다. 육아의 사회성과 역사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육아 담당 주체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공동체 사회 이념이다. 공동체적 사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류사회의 가장 이상적인 집단생활의 형태일 것이다. 따라서 공동육아는 공동체적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공동체적 삶을 익히며 공동체적 사회를 만들어 가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공동육아에서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양육을 누가 맡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보다는, 미래의 공동체적 사회를 지향하여 그 성원이 될 사람들을 위해 공동체적 방식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공동체적’이라는 것의 의미를 요약하자면, 첫째는 구성원의 개별적 독자성과 자율성을 뜻한다. 둘째는 구성원들은 공동체 전체의 존속과 번영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 이외에는 부당한 억압과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남녀노소가 기본적으로 평등하다. 셋째로, 성숙한 개인들 간의 자발적 협동과 민주적 참여에 의해 사회가 구성되고 운영된다. 넷째로, 모든 구성원의 개인적 복지는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이다. 사람과 자연의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도 공동체의 책임이다. 다섯째, 이런 공동체적 사회는 사유재산과 그것의 불평등과 공존할 수 있다. 단, 부

의 불평등이 심하거나 상속되지 않으며, 물질적 소유가 타인에 대한 권력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끝으로 공동체 사회를 이루는 개인들의 성향으로는 창의력, 독립성, 협동성, 자발성, 평등주의, 비폭력주의 등의 능력과 가치가 중시된다(조형 1994:319-320).

공동육아의 목표도 당연히 공동체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계발하고 실험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으로 시작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의 작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이기범, 1994). 이러한 공동 작업에 아이들만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 바로 그 부모들과 보육 종사자들도 그것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참여해야 한다. 아이들이 그들의 요구에 부합하고 또 더 바람직한 의미를 체득할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구성하기 위하여 부모와 보육 종사자들은 함께 토의하고 활동해야 한다. 또 아이들의 삶에 함께 하는 가운데 그들의 독특하고 확대되는 요구에 교감하고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스스로 그들의 입장을 수정하고 터전을 발전시켜야 한다. 공동육아는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뜻을 같이하는 교사와 전문가들과 함께 하고, 그들이 마련한 장에서 아이들이 생활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Ⅲ. 조합원으로서의 입문

1.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 계기

1) 주변 사람들의 권유와 믿음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공동육아에 대한 초기정보를 인터넷이나 광고의 형태로 접한 것이 아니라 공동육아를 경험한 지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공동육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다. 아직 공동육아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있지 않고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다른 사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다는 턱없이 적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실제로 공동육아를 한다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공동육아에 대한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은 주로 직장동료나 선후배, 친척 등 지인을 통해서이다. 입소문으로 공동육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사람들은 공동육아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으로 공동육아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얻거나 직접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해당 교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자신의 자녀를 보낼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공동육아가 본인과 자녀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조합원이 되어야 자녀를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고 그 자격 조건으로 출자금과 가입비를 내야한다. 그러나 무조건 돈만 낸다고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인원이 되면 더 이상의 아이들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기상태로 올려놓았다가 여석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 만약 여석이 있다면 이사진이 면접을 보게 된다. 면접을 보는 이유는 교육이념에 있어 공동육아어린이집의 방침을 대상자가 받아들이거나 수용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조합

이기 때문에 신 조합원이 구 조합원과 어울릴 수 없다면 본인에게는 물론, 다른 조합원에게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넓게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운영과 사업진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임수정은 직장생활을 하던 중에 직장동료에게 공동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공동육아에 관심을 갖게 된다. 특히 직장동료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두 아이 모두를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보냈고 이에 대한 만족이 상당하여 임수정에게 적극 추천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직장동료의 말을 듣고 나서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교육관이 마음에 들어 선택하였다.

윤인선의 경우도 타지에서 대전으로 왔던 터라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였는데 직장 선배가 공동육아를 강력히 추천해 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두 아이를 모두 공동육아 어린이집으로 보내기로 결심한다. 윤인선도 직장 선배의 이야기를 듣고 공동육아를 접한 케이스이며, 본인처럼 직장인들도 마음 편히 말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한다. 그리고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맡기면 왠지 모르게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공동육아에 가입했다고 한다. 특히 타지에서 대전으로 온 사람인 경우에는 주변에 어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좋을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인을 통한 입소문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지인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이기에 공동육아를 계속 접해본 지인의 말에 무시할 수 없으며 지인의 말에 먼저 관심을 갖고 공동육아에 대해 찾아보게 된다. 더욱이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찾는 조합원은 거의 비슷한 교육이념을 가진 분들의 모임이기에 서로 간에 많은 정보와 교육철학을 공유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찾는 경우도 있다.

또 어떤 조합원의 경우는 기존 어린이집에 대한 실망감으로 다른 어린이집을 찾아보던 중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된 경우도 있다. 허지혜는 아들을 과거에 사설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 우선 어린이집의 교사며 원장님이 너무 사무적이며, 어머니의 출입을 금하기까지 할 정도로 폐쇄적이었다고 한다.

(1) 예전에 다녔던 어린이집은요 개방을 잘 안 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을 잠가놓고 일정시간이 아니면 절대 방문을 못하게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나미가 떨어져서.. 그런데 여기는 늘 열려져 있잖아요. 오히려 부모들이 일 년에 몇 번씩 직접 어린이집에서 아마활동⁵⁾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면에서 마음에 들더라고요.(허지혜)

허지혜에게 어린이집은 포근하고 언제나 열려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게 지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학부모의 출입에 대해 호감을 갖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개방되어 있다. 특히 아이들이 먹는 음식과 프로그램에 관련된 모든 것은 조합원의 승인을 받아야 실시할 수 있고, 주방 일을 하는 사람도 간혹 영양사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건비절약차원에서 조합원에서 자체 담당하시기 때문에 공동육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숨겨서도 안 되고 숨길 필요도 없는 즉, 늘 열려져 있는 공간이다. 더군다나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지내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아마활동도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자체가 폐쇄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부모들은 믿음이 간다고 한다. 물론 아마활동자체에 대해 한편

5) 아마활동은 크게 청소아마와 평일아마가 있다. 청소아마는 특정한 날에 한 번씩 어린이집에 와서 청소 및 설거지를 하는 것을 말한다. 평일아마는 교사의 연월차나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날에 일일교사 형태로 이루어진다. 교사 대신 참여하기도 하고, 교사가 있을 경우엔 교사와 함께 그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하루 종일 생활한다. 평일아마는 조합원의 중요한 의무이자 권리이기에 가구당 일 년에 1회 의무 참여해야 한다.

으로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도 있다. 아마활동이 전업주부에게는 그리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직장 여성에게는 연차를 써서 봉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공동육아어린이집에 이런 시스템에 대체로 공감하며 찬성하기 때문에 공동육아에 관심을 갖고 찾는다.

2) 공동육아에 대한 기대감

조합원 중에는 본인들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함께 어떠한 일을 꾸려나간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공동육아에 관심을 갖게 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본인은 자녀교육을 위해 공동육아를 알아본 것이지만, 결국엔 본인도 공동육아를 하면서 부모로서 어떠한 유익한 것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공동육아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었다.

조합원이 되기 전 사람들은 공동육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 소개받으며, 조합원이 된 다음에는 신입조합원 교육과 방모임, 모듬모임 등을 통해 공동체원으로서의 활동을 한다. 이러한 공동체 활동에 대해 호의적인 부모들은 힘든 세상에서 소속감과 따뜻함을 느끼며 사람들과 함께하고 호흡하고 싶어 하는 바람도 보였다.

(2) 공동육아는 같이 우리아이를 키우자는 거잖아요. 공동육아라는 말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그건 공동체에 대한 강조를 하는 집단이거든요. 솔직히 직장생활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한계가 있어요. 좀 사무적이라고 할까? 모든 것을 다 나누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관계. 그런데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공동육아를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하다고 하네요. (웃음). 그런 포근한 사람들과 계속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정인혜)

공동체라는 말에 정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격이 사교적이지만 타지에서 이사 왔기 때문에 주변에 친구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친척도 없어 자신을 다른 사람과 엮어줄 장치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모임에서의 친구 만들기를 넘어서 육아를 매개로 다양한 정보를 나누며 함께 호흡할 수 있고 서로의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육아에 대한 도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이효진은 전업주부로서 남편을 쫓아 대전까지 왔는데 알고 있는 친구도 없고 자신과 맞는 친구도 찾기에 힘들었는데 공동육아에 대한 정보를 듣고 나서 공동육아에서의 공동체가 시간이 비교적 남는 본인에게는 오히려 호기이며, 다른 조합원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을 기대하며 참여했다고 한다. 그는 공동육아가 자신의 자녀의 사회성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그 공동체에서의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 공동육아로 선택했다고 한다.

조합원 중에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조합에 표명할 수 있다는 것을 큰 장점으로 여기고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들어온 경우도 있다. 최아영은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식단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끼고 공동육아에 참여했다. 이렇듯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은 자녀양육에 있어서 개인적인 소신이 비교적 뚜렷하다. 그리고 만약 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개방적인 분위기속에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가운데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을 함께 고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끼고 공동육아에 문을 두드린 사람들도 있다.

(3) 공동육아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나서부터 어떤 곳인지 한번 찾아보니 자료가 많더라고요. 그곳에서 저도 우리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면 조합원들끼리 충분한 토의가 이뤄져서 결국에 그게 교육에 반영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체 없이 왔죠.(최아영)

이렇듯 부모들은 처음에는 지인을 통해 공동육아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그 후에 본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공동육아 시스템에 대해 조금씩 이해하게 된다. 그러는 동안 부모들은 공동육아가 단순히 아이들을 맡기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도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뭔가를 배우고 얻는다는 기대감과 함께 본인도 조합원이 되면 자신의 자녀가 속한 어린이집에 당당히 조합원으로서 목소리를 냈으로써 본인이 바라는 유아교육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3) 기존의 교육패러다임에 대한 재고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다른 어린이집과는 달리 인지교육이나 특기적성교육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동육아 어린이집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터전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의 흐름에 맞는 생활리듬을 갖도록 도와주며, 아이들의 관심과 요구를 존중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다. 예를 들면, 오전에 아이들과 선생님이 같이 인근지역으로 나들이할 때에도 교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갈 곳을 정해 나가도록 한다. 가끔 아이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다양해서 나들이 갈 시간이 줄어든 적도 있지만, 그만큼 아이들은 자기 의사 표현에 적극적이며, 교사는 이러한 분위기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들이를 하는 동안 아이들은 자연을 접하면서 동시에 오후에 오후활동을 할 수 있는 자연물을 직접 아이들이 채취해서 온다.

이러한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분위기는 일반 어린이집과는 달리 자연친화적이며,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야외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자유롭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러한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프로그램에 호감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너무 이른 나이부터 인지교육을 시키는 사설어린이집에 대한 반감으로 이곳을 선택한 조합원도 있었다.

(4) 애들이 아직 초등학생도 아닌데 지금부터 이렇게 열심히 공부시킬 필요 있나요? 설사 공부잘한다고 해도 애들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닌데.. 전 이 나이 때 애들은 무조건 뛰어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이효진)

이런 분들은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아이에게 좋은 추억을 어릴 적에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여긴다. 또, 자연을 벗 삼아 자란 사람들이 나중에도 건강하고 밝게 자란다는 소신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자연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 매력을 갖게 된다. 김동률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 시냇물과 산이 있어서 매일 밖에 나가 다른 아이들과 수영도 하고 송사리 잡으며 산에 올라가서 할머니와 함께 약초도 캐고 했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그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릴 적부터 산과 들로 뛰어다녔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본인의 어릴 적 추억을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도 똑같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육취지에 공감을 많이 하여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선택하게 된다.

어떤 분들 중에는 공동육아에서 인지교육을 반대하고 자연친화적인 교육프로그램 등 이러한 공동육아의 방침을 기존 유아교육에 대한 반기를 드는 것으로 보고 더 폭넓게 생각하여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일

종의 시민운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조합원도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조합원들은 대개 대학 때부터 시민운동이나 사회변혁에 관심이 많아 주로 운동권이나 그러한 종류의 활동을 조금이라도 했던 경험을 있는 사람들이었다.

(5) 저는 대학 때부터 시민운동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공동육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존 유아교육에 대한 차별적인 시도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유기농을 먹이는 것. 그리고 사교육을 금지시키는 것 이모든 것이 모두 시민운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전 이런 공동육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부터가 이런 활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최수희)

4) 같은 교육이념을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 욕구

조합원들은 자녀들을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자녀들을 외부의 사교육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이곳을 선택한 이유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본인이 다른 조합원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느끼고 경험하며, 자극받기 위해서 선택하기도 한다. 혼자 막연하게 책이나 강의를 들으면서 학습할 수도 있지만, 육아라는 것을 어차피 해야 하는 것이라면 육아라는 매개체를 통해 사람들과 어울려 학습할 기회를 얻고 그 가운데 지속적으로 교육철학을 공유하기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공동육아를 선택한 사람들도 있었다. 또한 조합원 중 몇 명은 같은 교육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 중 몇 명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소신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자신의 교육이념을 다른 사람에게서 확인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효진은 5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애들에게 어릴 적부터 영어라든지 음악, 미술과

같은 예체능을 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주변에서 워낙 많이 시키다 보니 본인의 소신도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굳건히 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과 교육소신이 비슷한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싶어 하며, 그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자신의 교육철학을 공고히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6) 저는 솔직히 제 아이만큼은 실컷 놀고 재미있게 생활하고 웃고 즐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영어다 미술이다 음악이다 태권도다 해서 학원을 뱅뱅이로 돌리면 애들에게는 무슨 낙이 있겠어요? 지옥이지. 저는 우리아이만큼은 충분히 뛰고 놀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곳을 찾아왔고요. 혹 제가 다른 주변의 아이들의 생활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이곳에 왔어요.(이효진)

조합원중 절반이상은 연구원이다. 즉 공부를 하다 보니 결혼연령이 다른 사람들보다 대체로 많은 편이고 타지에서 생활하다가 연구단지로 온 사람들이 제법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동료 이외에 자신의 교육관이나 자녀양육과 같은 이야기를 터놓고 말할 상대가 적을 뿐 아니라 동시대에 비슷한 교육적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들을 매개로 비슷한 사고관념을 가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도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만남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쉽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함께 담겨져 있다. 임수정은 타지에서 와서 사람들을 사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이효진처럼 자녀양육에 대한 공유를 하고 싶어서 공동육아를 선택했다. 김태효는 이런 만남을 본인에게는 좋은 친구를 얻은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를 사회적 자본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인간관계는 다른 자본과 같이 시간과 노력, 물질 투자를 통해 획득되고 축적됨으로써 개인이 보유한 자본으로서의

기능(민선향, 2006)을 하게 된다. 또한, 이런 교육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깨어있는 사람으로 보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아는 것이 결국엔 자기 자녀에게도 좋을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큰 자산으로 생각하였다.

(7) 지금 이 시대에 여기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시는 분은 좀 다른 분들과는 달리 생각이 깨어 있는 분이라고 느껴져요. 이게 평범한 생각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분들과 자녀양육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맺은 인연은 계속 가잖아요. 타지에서 아는 사람 없이 사는 것도 힘든데 이런 의식을 가진 분들하고 지속적인 접촉을 하면 아이에게도 좋고 저한테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임수정)

또한, 공동육아에 참여한 아빠 중에는 기존의 육아개념에 반기를 들며, 육아는 엄마의 영역만이 아닌 아빠도 엄마와 동등하게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한 조합원도 있다. 이는 흔히 남자들이 하는 생각에는 다소 벗어나는 이야기일 것 같지만, 아빠들 중에서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동참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빠 조합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시스템상 엄마, 아빠 모두의 역할을 모두 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동의가 없이는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아빠들은 육아에 점차 관심을 갖게 되며, 엄마들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동등하게 나눠 갖기 시작한다. 김동률은 공동육아를 가족 내의 개념에서 아빠와 엄마의 유기적인 결합이라고 생각하기에 아이를 엄마 혼자 담당하게 해서는 안 되며, 아빠와 협력해서 같이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러한 지향점을 가진 사람들과의 연대로 이러한 문화를 키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공동육아에 참여한 계기는 크게 3개로 나뉘지며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다.

<표 III-5> 공동육아에 참여하게 된 계기

	상위범주	하위범주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 계기	주변 사람들의 권유와 믿음	지인으로부터 공동육아의 소식을 접함.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수집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하여 정보를 얻음
	공동육아에 대한 기대감	공동육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은 기대감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기대감
		조합원들의 공동체 활동에 대한 기대감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재고	인지교육·특기적성교육에 대한 회의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공감
	같은 교육이념을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 욕구	지속적인 교육철학을 공유하고 싶은 욕구
		자신의 교육철학을 공고히 하고 싶은 욕구
		사람들과의 연대로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키고 싶은 욕구

2. 조합원으로서 자리 잡기

1) 초기적응과 부담감

공동육아어린이집은 설립주체가 조합원인지라 어린이집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조합자체에서 해결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어린이집에서 요구되어지는 모든 비용은 조합원들의 예산에서 모두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조합원들이 내는 출자금과 가입비, 조합비, 보육료 등으로 어린이집의 전세자금과 프로그램 운영, 식단, 교사 인건비 등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조합원들이 모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상관없지만, 제법 많이 들어가는 출자금과 매달 내야 하는 조합비에 보육료까지 생각하면 조합원으로써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일반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만 내면 되는데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그보다 더 비싼 금액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정된 금액에서 여러 가지 계획해서 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는 여유 있게 보수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시간외 수당과 같은 문제에서도 총회안건으로 채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넉넉하게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교사회에서도 이해하는 분위기이다.

조합원이 되면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을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둘째 아이가 있을 때에는 보통 5년 이상을 어린이집에 맡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한정된 장소에 오래 있다 보니까 다른 조합원과의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조합원도 있다. 만약 다른 조합원들과의 관계에서 틀어지거나 또는 본인이 다른 조합원과의 마찰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아이가 어린이집에 적응을 잘한다 해도 부모 때문에 어린이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런 경우는 예전에도 발생했었다. 아이를 맡긴지 거의 3달이 지났고 아

이들도 적응을 잘 하고 있었는데 부모들끼리 의견 차이를 조율하지 못하고 그것이 급기야 감정싸움으로 번지면서 결국에는 감정이 상해서 조합을 탈퇴하는 일도 생겼다.

대부분 공동육아 조합원들은 공동육아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조합원에게 과도한 일거리를 떠넘긴다는 생각을 하는 조합원도 있었으며, 다른 어린이집하고 비교해서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관한 모든 일을 조합원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버거워 하는 조합원도 있었다. 또한, 단순히 조합원을 넘어서 정기총회 때마다 선출하는 이사진에 선출되는 것에도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조합원도 있었다. 이사진은 모든 조합원을 대표하여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한해 사업과 설비, 예산 등등을 심의, 결정하는 기구이므로 일반 조합원하고는 또 다른 책임과 헌신을 요구받는다. 연구자가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이사장을 포함하여 여러 이사진을 선출하는 과정을 살펴보니 많은 조합원이 이사진에 선출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는 장면을 보았다. 자신의 직장일과 어린이집에서의 중책을 모두 감당하기 부담스러워 회피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번 이사진에 선출이 되면 1년 동안 조합원을 위해 수고해야 하는데 평일에 회의를 하면 새벽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한다. 그렇다고 이사진에게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순수한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8) 제가 시설 모듬에 들어갔는데요. 어찌나 어린이집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지, 담벼락을 꾸미는 것부터 해서 아이들 놀이터를 만드는 것에 까지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막히더라고요. 이제 저에게는 휴일이라는 게 없겠구나.(김동률)

김동률은 이사진이 아닌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정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답답함을 느낀다고 했다. 이렇게 조합원들은 이사진이

아니더라도 이전의 육아의 개념과는 다른 환경에 접하면서 다소 부담을 느낀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면 부모들은 공동육아라는 개념을 막연하게나마 알고 왔고 여러 지인의 소개로 왔지만, 직접 그 안에서 경험한 공동육아는 본인에게 맡겨진 권한과 책임에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였다. 선배조합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적응을 했기에 별로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나, 간혹 이사진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에 버거워하는 경우도 있었다. 신입조합원인 경우에는 이러한 생활이 익숙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동육아어린이집에 있는 새로운 사람들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어 심적으로 더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렇게 신입조합원이 공동육아에 적응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방어적인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조합에 적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임을 깨닫고 자신의 기존의 사고를 조금씩 바꾸면서 스스로 공동육아 어린이집 속에 조금씩 적응하게 된다.

(9) (이렇게 어린이집에 제가 헌신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제가 선택한 곳이고 면접까지 보면서 온 것이기에 어떻게든지 참여하려고 하고 있어요. ...(중략)...그런데 그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참 밝잖아요. 그리고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따라가려고 합니다. 질이 싫으면 종이 떠나는 것처럼 기왕 제가 선택한 거 열심히 참여하려고 노력해야죠. (김태효)

2) 적응하기 위한 의지

은을 어린이집에서의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부모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선택한 어린이집이기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공동육아에 적

응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은울 어린이집에서 활동하며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자기주도적인 자세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달리 인식되고 있었다. 즉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겼는지에 대한 여부와 부모가 된 이후에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0) 제 아이가 여기를 다닌다고 생각이 드니까. 저도 웬지 모르게 우리 애를 봐서라도 열심히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인 것 같기도 해서.(정인혜)

부모들이 처음 공동육아에 자녀를 보내면서 맞닥트린 문제들은 ‘수동적이고 소비자적인 입장’에서 ‘능동적이면서 주체적인 입장’으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겪는 문제였다. 지금까지 부모들은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돈을 주고 우리 아이를 맡기는 장소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있어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자기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조합의 일에 참여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조합원으로서 본인의 권리를 찾고 이에 따른 책임도 수반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조합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킨다.

이렇게 여러 상황들을 잘 극복한 부모들은 본인이 바라는 교육관에 따라 공동육아를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육아의 다른 조합원들과 융합되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합원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지만, 스스로 극복하고 자신의 사고의 틀을 바꿔나감으로써 그 조직에 잘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자율적이고 자유로우며, 성장 지향적(growth-oriented)인(Merriam, 2001) 성인의 모습으로써 주체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학습자상이며, 성인들

이 성숙해짐에 따라 주도적으로 동기를 인식하고 실행에 옮기는 등 성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참여해 나간다는 Knowles(1970)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다.

IV 조합원들의 학습활동과 육아방식의 변화

1. 조합원들의 학습활동

1) 다른 조합원과의 관계 맺기

신입조합원이 되어 공동육아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으면 가장 먼저 자신의 별명을 정해야 하고 상대방과 이야기 할 때는 그 조합원의 별명을 불러야 한다. 조합원의 본래 이름을 철저히 숨긴 채 제 2의 자아인 새로운 별명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이들은 은울 어린이집에 들어올 때부터 서로에 대한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서로의 별명을 부르며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 예를 들면 상대방의 실제이름과 나이, 직업도 전혀 모르는 채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11) 저는 이분하고 같이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하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직업도 몰랐어요. 저희들의 화두는 양육. 어떻게 하면 우리 애를 잘 키우느냐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주로 얘기를 하지. 무슨 일을 하시냐? 나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은 거의 나누지 못했어요. 최근에서야 나이, 직업을 알았죠. (김동률)

대부분 신입조합원은 공동육아에 대해 익숙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 공동육아에서의 독특한 문화에 적응하는 것에도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신입조합원에게 가장 힘든 것은 다른 조합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이다. 어떤 조합원은 처음 은울 어린이집에 들어와서 마

실이라는 것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그리고 누구와 마음이 맞을지 몰라 혼자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동육아에 참여한 가족들은 마음에 맞는 가족이 있으면 일상에서의 조그마한 일까지도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보내기도 한다. 의식주 생활뿐만 아니라 여가를 함께 보내는 것에 이르기까지 내 가족끼리 삶에서 다른 조합원하고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확장하게 된다. 다른 조합원과 이러한 관계 맺기를 하기까지에는 자녀를 매개로 한 다양한 활동이 바탕이 된다.

신입조합원일 때에는 공동육아라는 낯선 문화에 신기해하기도 하고 당황해하는 모습도 있지만, 은울 어린이집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다른 조합원들과 삶의 여러 부분들을 공유하면서 서로 자기 개방을 하고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며 상대방의 의견이나 느낌을 평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조합원들의 가족 간에는 만남의 기회가 많다. 왜냐하면 매일 아이들을 데리러 부모들이 오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다른 조합원을 만나는 기회가 많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방모임이나 총회, 소위모임, 조합원 교육 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조합원과의 만남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생긴다. 특히 방모임인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각자 집에서 가지고 온 다과나 과일을 함께 나누면서 만남의 분위기를 더욱 더 친밀하게 한다. 그들은 오히려 밖에서 식사하는 것보다 이곳 사람들과 함께 여기에서 먹는 것이 더 좋다고 한다. 왜냐하면 같은 나이 또래의 아이의 부모들이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재미있게 놀 수 있고 부모들은 서로 친분을 쌓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이를 둔 집에서는 서로의 상황을 잘 이해해주는 터라 애들이 난리를 쳐도 서로 이해를 해주는 분위기가기에 더욱 더 편안하게 만남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조합원들은 개별 가족 단위 안에서 생활하다가 다른 사람과 함께 의견을 조율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집단 안에서 소속감과 정체성을 찾게 된

다. 물론 앞선 경우처럼 공동육아에 속한 조합원 중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며 어떠한 모임을 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조합원들 간의 관계를 유지할 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거리적인 근접성이며 자신의 아이와 같은 연령대인가도 중요하고, 조합에 들어온 시기 등등이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데 조합원이 스스로 공동육아에 적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런 후에 사람들하고의 밀접한 상호작용이 뒤따르면 쉽게 다른 조합원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할 수 있다.

(12) 여기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타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좀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공동육아는 정말 제격인 것 같아요. 의외로 아이들은 빨리 적응하는데, 어른들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여기에 계신 한분과 마음이 통하면 그때부터는 관계형성이 폭발적이거든요. 적응을 하면 의외로 다른 조합원들하고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최아영)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퇴원 시 아이들을 함께 태워 보내고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 가족이 다른 가족의 자녀를 같이 태워주는 일도 생기며 때로는 다른 부모가 집에 올 때까지 자신의 집에서 애를 봐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식사자리도 자연스럽게 마련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부부끼리 오랜만에 영화를 보러 갈 때에도 다른 부모에게 부탁을 해서 애를 맡기는 경우도 있다. 이런 종류의 부탁을 할 때에는 서로 거부반응이 없는데 왜냐하면 서로 품앗이 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부탁을 주고받고 함으로써 조합원들 간에 마음이 맞아 함께 여행을 가는 경우 등 친목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다.

(13) 애를 가진 부부가 어디 마음대로 영화 보러 밖에 나가는 사람 있 습니까?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봐주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 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내 아이를 키우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키우자는 것이니까 우리 아이를 남에게 맡기는 게 그리 부담이 안 된데 요. 다음에 제가 그쪽 아이를 봐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도 움을 주고받으면 그 분하고는 정말 친해지게 되어 있어요. 웬만한 친척 보다도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웃사촌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말이 맞더 라고요.(김태효)

때로는 조합원의 집에 놀러가 함께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문화가 있는 데 이를 마실이라 한다. 엄마들끼리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경우 한집에 모 여 함께 먹고 즐기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친밀해지고 상대방의 힘든 점을 헤아려 더 깊은 도움을 주고받게 되기도 한다. 이런 기회가 종 종 있으면,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같이 놀면서 친해지게 되고 부모들은 자 신의 삶을 공유하면서 다른 조합원들과의 관계형성이 더 돈독해진다. 물론 성격상 이런 문화에 좀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함께 나누 면서 얻는 정보와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알아가는 것을 좋아했다.

(14) 저처럼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친구가 없어요. 그렇다고 성격상 아 무나 만나서 얘기할 수도 없고 어떤 성향이 조금이라도 같아야 하는데 공동육아로 모인사람들은 한결같이 마음이 오픈된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요. 나름 쉽게 다가갈 수도 있고 서로 얘기를 나누면 재미있고 무엇보다 인간관계가 넓어진 듯 한 느낌이어서 좋아요. 특히 애기 아빠가 늦게 들 어오시는 경우 같이 먹고, 마시고 얘기하면서 개인적인 얘기할 때가 가 장 재미어요. 솔직히 어린이집에서는 물어보기 힘든 거 있잖아요. 어떻게 남편을 만났는지 이런 거요. 점점 더 친해지면 서로의 고민도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애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쉽게 친해지죠. 같은 방식구이기도

하고. 같은 조합원이고 사는 곳도 비슷하니까.. (이효진)

어린이집 조합원들은 서로 단순한 조합원의 관계에서 벗어나 실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각박한 현대 사회에서 이웃의 정을 느끼는 인간적인 교류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참여자가 조합원들에게 공동육아의 장점을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어린이집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조합원들 간에 느끼는 인간미와 정이라고 대답한 사례가 많다. 육아를 하면서 아이와 관련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헤쳐 나가는 동지를 많이 만나면 험한 산도 의외로 쉽게 넘을 수 있다고 한다. 정인혜는 집주변에 남편의 직장 동료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그 집의 구성원들과 교류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직장에서의 동료는 말 그대로 동료일 뿐, 그 이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조합원 사람들은 같은 가족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만나면 편안하고 부담이 없으며, 무엇보다도 같은 또래의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잘 놀기 때문에 함께 자리를 갖는 것이 편하다고 말한다.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받는다. 낯선 길을 가는 이들에게 다른 조합원의 정서적인 지지는 “우리”라는 동료의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즉 그들은 공동육아라는 틀 안에서 함께 하는 집단으로서의 가치를 경험하며 서로를 어떻게 지지하고 도울 수 있는지를 점차 배우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이집 교사나 타 조합원과의 갈등상황에 대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경험을 함께 나누게 되며 점차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한다.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조합원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갖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합원들끼리 서로 필요한 옷이나 물품도 서로 나눠쓰고, 바꿔쓰고, 물려주고 물려받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듯이 조합원들

과의 관계가 먼 친척보다도 더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15) 애들 옷은 사서 입히기가 좀 아깝잖아요.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 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분명히 서로 필요한 것이 있고 저희들 안에서 다 공급이 되거든요. 내복도 얼마나 많이 얻었는지 더 이상 살 필요도 없고... 그런데 저희는 신발이 좀 있거든요. 애가 크면서 발이 금방 커서... 그래서 신발도 다른 애한테 물려주고.. 이런 면이 좋은 것 같아요. (임수정)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공동체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조합원들 간의 관계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조합원들은 각자의 지분을 가지고 어린이집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무도 주어지게 된다. 조합원으로서 해야 할 의무는 이사진을 맡는 것이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한 번씩은 직간접적으로 이사진을 맡게 된다. 이사진은 정기총회를 통해 선출이 되는데, 모든 조합원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통 남편이 이사진을 맡으면 그 일을 아내와 함께 나누어 하게 되는 것이므로 아내도 함께 남편의 일을 자연스럽게 돕게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사진으로 일을 추진할 때에는 단독적으로 해야 하는 일보다는 다른 조합원과의 연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혼자 힘으로 모든 일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인혜는 은율 어린이집의 모든 시설관리를 책임지는 시설이사로 선출됐다. 그는 시설이사로 선출된 다음에 담장을 꾸며달라는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담장 꾸미기 프로젝트를 맡았다. 꾸미는 것에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격상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도 잘 하지 못하기에 힘들어하다가 시설모듬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고 도움을 요청했더니 의외로 모듬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고 한다. 시설이사가 한 것은 어떤 일에 대해 큰 틀을 제시하고 적절

하게 일을 배분해 주며 간식거리를 준비한 것밖에 없다고 한다. 이 일을 계기로 정인혜는 모든 조합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같은 모듬에 속한 조합원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어떠한 일을 추진했을 때에는 일에 대해 자신감도 생기고 뿌듯함도 느꼈다고 한다.

부모들의 이러한 조합원과의 관계맺기는 인위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의도하지 않은 환경에서 형성된다고 한다. 최아영은 방모임을 통해 조합원들끼리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모임의 가장 중요한 소재는 육아이고 같은 나이포래의 부모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실제적인 육아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육아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선배조합원, 신입조합원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입조합원은 선배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선배조합원은 육아 및 공동체 활동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나누어 주고, 신입조합원은 선배조합원에게 언제나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 즉 신선한 자극을 준다. 결국에는 조합원들이 은을 어린이집에서 다른 조합원들과 관계맺는 방식은 아이를 매개로 한 방모임에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게 확장되어 자녀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이야기로 바뀌면서 다른 조합원과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다.

2) 수평적 소통의 참여 : 토의와 토론을 통한 학습

토론은 학습자와 학습자간 또는 학습자와 교사가 정보나 아이디어, 의견 등을 나누기 위해 서로 이야기하거나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탐구과정이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공통 관심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답을 찾

기 위해 서로의 다양한 관점을 검토함으로써 논점이 되는 문제들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 평가나 판단, 의사 결정, 행동 등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토론의 기본 원칙은 학습자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긍정적인 학습의 성취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는 토론 과정을 통해서 주제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준다.

조합원들 간에 토의와 토론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평등한 관계이다. 누가 더 오래 조합원 생활을 하였건, 누가 더 연륜이 높은지에 상관없이 서로 선입견이 배제된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실제로 상대방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서로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다. 왜냐하면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분위기상 별칭을 부르도록 되어 있고 자녀의 양육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는 감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은 모두 같은 출자금과 조합비, 가입비를 내고 왔기 때문에 누구나가 발언권은 동등하다.

조합원이 토의와 논쟁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환경은 총회, 방모임, 조합원 교육을 통해서이다. 또한, 어린이집 홈페이지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도 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토의와 논쟁이 이루어져왔던 것은 반말 문화이다. 은울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이 교사를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르지 않고 대신 별명으로 부르며 반말로 얘기한다. 자기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에게도 반말로 얘기하며 교사에게도 반말을 쓴다. 나이가 어린 아랫사람이윗사람에게 존댓말을 쓰는 우리 사회의 언어 규범을 생각해 볼 때 처음 들어온 사람이나 아니면 예절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익숙지 않은 풍경이다. 별명과 반말 문화는 초기 공동육아를 설립할 당시 교사들끼리 나이, 경험, 학력의 차이를 일상의 언어에서부터 극복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얼마 후 교사와 아이 간의 의례적인 존댓말과

호칭의 벽을 없애고자 아이들하고도 사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아이와 어른 간에 별명과 반말을 쓰기 시작한 배경에는 어른들과 밝고 평등한 관계를 일찍부터 경험한 새로운 세대를 키우는데 좋은 밑바탕이 되길 바라는 의도가 있었다(정병호, 1995). 이러한 의도를 갖고 시작된 별명과 반말문화는 이후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고유한 문화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조합원 중에는 이러한 반말문화에 반감을 갖는 분들도 있었고 이러한 내용을 어린이집 방모임 할 때 다른 조합원과 함께 나누게 된다. 김동률은 집에서 자녀가 부모에게는 반말로 해도 상관없지만, 밖에 나가서는 특히, 윗분들에게는 존댓말로 공손히 이야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아이들에게 늘 교육시켰다. 그 조합원에게 있어서 반말 문화는 물론 아이들과 어른과의 관계를 평등한 관계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동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데에는 언어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올바른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주요한 이유는 아이들이 아직 미성숙한 존재라는 것을 저변에 깔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자녀가 별명 부르기나 반말을 어린이집에서 쓰다 보니까 자녀도 언제, 누구에게 존댓말을 써야 하는지 혼동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률은 이러한 내용을 방모임에서 나누었고 방모임에 참여한 3-4명의 조합원은 이에 대해 사례를 들어가며 제시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 중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다.

(16)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요, 제가 어떤 아이와 부딪쳤는데요. 그 아이는 아무 말도 안하고 썩하니 가는 거였어요. 혹시 이게 언어에서 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랬더니 다른 조합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존댓말을 써도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이기에 오히

려 말보다는 인간관계를 조금 더 다지는 게 어떨겠냐고? 또 어떤 분은 아마활동을 하시면서 느낀 것을 말씀하시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똑부러지게 얘기를 잘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아주 자유롭게 말한다는 얘기죠. (이효진)

김동률은 아직 어린이집의 반말 문화가 낯선 상황으로 혼란스럽고 판단이 안선다고 한다. 그리고 반말이라는 형식이 취지는 좋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맞지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서로 존경하고 배려하는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말 문화에 익숙한 조합원은 말의 형식보다는 아이와 어른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아이와의 평등한 관계를 맺는 데에 반말문화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문제를 제기했던 조합원은 반말이라는 문화를 바꾸자는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느낀 바를 나누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방모임을 하면서 다른 조합원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생각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어떤 조합원은 반말문화와 관련하여 다른 조합원과 토의를 하다가 자신의 생각의 폭을 더 확장시킨다. 반말 문화와 관련하여 본인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반성을 하게 된 것이다.

(17) 반말로 얘기하자는 공동육아의 이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게 저에게는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육아는 우리 아이를 같이 키우자는 것 아닙니까? 내 아이는 저에게 반말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아이도 저에게 반말하는 것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아이들 입장에서 다가가야 할 때 어른의 권위로 는 힘들지만 반말을 하면 나도 아이도 자유로워져서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른의 권위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또 아이들을 거칠게 대하고 그 속에서 권위를 부리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반말이 어떨 때는 우리 어른이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거칠고 강압적일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반말을 쓰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김태효)

김태효도 방모임에서 서로 반말문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면서 반말문화를 아이들에게만 초점을 맞춰 생각한 것에서 한 단계 더 확장하여 자신들의 언어문화도 같이 생각해보게 된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는 주제는 사교육과 관련된 사항이다. 이 문제는 매번 다루어질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기에 전체 조합원 교육⁶⁾때에 주로 다루는 주제이기도 하다. 조합원들은 교육 내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다른 조합원의 생각과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나간다.

다른 어린이집과는 달리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금지시키고 있다. 사교육문제와 관련해서 어린이집에서는 어떠한 사교육도 금하는 입장이기에 조합원들은 이에 대한 효과성 여부를 많이 토론했다. 어떤 조합원은 공식적인 모임을 통해 언급하기 보다는 홈페이지에 사교육을 반대하는 입장에 부정적인 입장의 글을 쓰다가 다른 조합원과 마찰을 만들기까지 했을 정도로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예체능 교육이건, 외국어교육이건 아직 배움의 자세가 갖춰지지 않은 유아들에게는 기능 교육일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그러한 분위기에 젖어들게 하는 게 더 좋

6) 조합원교육은 주로 강사를 초빙하여 강연을 듣는 형식이다. 주로 교육모둠에서 주관하여 교육 주제 및 강사를 섭외하는 일을 한다. 교육 주제는 교육모둠에서 현재 조합원이 관심 있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하며 상향식 방식으로 결정한다. 지금까지 교육주제는 사교육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자녀-부모와의 관계형성에 도움이 되는 '대화법', '마음읽기' 등이 있었다.

은 교육임을 강조하고 있다. 허지혜는 사교육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자녀가 배움에 있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선배 조합원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토의와 토론을 했다.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다가 다른 조합원들과 사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점차 그 취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큰 애에게는 사교육 없이 마음껏 뛰어 놀게 하고 인지교육을 배제했다. 그러나 결국에 학교에서는 잘 적응하지 못하고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그래도 부모로서 마음을 다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니 자녀가 방향감을 찾고 공부도 곧잘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첫째 애를 은울어린이집에서 졸업시켰고 지금은 둘째 애를 은울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 첫째 애의 경우처럼 사교육에 대해 남들보다 뒤쳐지지 않는가 하는 불안감을 갖지 않고 마음 편히 어린이집의 프로그램과 방침에 맞게 시키고 있다.

김태효는 오히려 조기 교육이 무조건 좋은 것일 수 없으며 오히려 그것이 아이들의 상상력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8) 아이들은요, 따라하기와 본보기를 통해서 배워나가거든요. 주위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따라하면서 자신의 신체 기관들이 제 모습을 갖춰나가는 거죠. 이때 아이들은요, 완성되고 아름다운 형태보다는 덜 채워져 있어서 상상력을 쓰게 만드는 형태가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 큰애는 다른 유치원에 보냈는데요. 거기에서는 당연히 한글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애가 한글을 일찍 배웠거든요. 그런데 둘째는 은울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아무것도 시키지 않아 조금 불안해 망설였는데요, 조합원들과 얘기하면서 한번 시험 삼아 한글을 안 가르쳐 봤더니 오히려 상상력이 뛰어나더라고요. 애들이 한글을 알면 좀 상상력이 줄어드는 듯 한 느낌이예요. (김태효)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은울 어린이집에서의 교육 방침에 대해 공감을 하지만, 다시 한번 그들의 교육적 소신과 방향을 다른 조합원에게서 점검받고 싶어한다. 은울 어린이집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을 공론화할 수 있고 다른 조합원과 토론과 토의를 할 수 있다. 은울 어린이집의 조합원들은 공동의 교육이념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 주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다. 이렇듯 은울 어린이집이 작동하는 방식은 조합원간의 토론과 토의를 통한 원활한 소통에 있다. 조합원과의 소통이 원활하면 그 가운데 건설적인 토론이 발생하며 그것은 조합원간의 지적·정서적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공동체성을 강화해준다. 그러나 토의, 토론에 참여하는 인원의 불균형으로 합리적인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조합원들은 공동체 안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에 휩싸이게 될 때도 있다.

은울 어린이집에서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몇 년 전에 사교육 관련해서 어느 한 조합원이 자신의 생각을 다소 격한 어투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적이 있었다. 본인은 유아교육과를 졸업했고 결혼 전에 아이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조합원은 아이들이 특정한 시기가 되면 지적인 면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터라 이 시기에 많은 것을 가르쳐줘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어려운 전문용어를 써가며 자신의 논리를 펼쳐나가는 글을 썼다. 그러나 다른 조합원은 이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고 교육이념이 맞지 않으니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라는 투로 댓글을 달았었다. 이에 두 사람이 온라인에서 언쟁을 했으며 급기야는 해당 조합원이 탈퇴하는 일까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건을 목격한 조합원은 소통과 공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했다고 한다. 실제로 이 사건은 두 사람과의 감정싸움으로 빚어진 결과였

다. 만약 그 조합원이 한발 물러서서 이성적으로 접근했거나 다른 조합원들도 함께 토의가 이루어졌다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었을 일이다. 소통이 원만하다는 것은 남에게 상처 주는 일도 쉽게 생길 수 있음을 내포하는 것으로써 여기에는 경청과 공감의 필요가 있다. 경청과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겸손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은을 어린이집 조합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소수의 사람이 의견을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당사자에게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한다고 한다. 그리고 시간제한 없이 결론이 나올 때까지 토론을 한다고 한다.

(19) 우리는요, 한번 회의하면 꽤 오래 걸려요. 그리고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다 물어봐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우린 끝까지 경청하고 공감을 합니다. 물론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다 듣고 어느 한 조합원도 섭섭하지 않도록 노력을 최대한 합니다.
(김태효)

조합원들은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최선의 정책을 만드는 것이 공동육아의 이념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의견을 모두 소중하기 때문에 소통과 공감은 요즘 시대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3) 개인적 사고의 집단적 공유

은을 어린이집의 신입조합원들은 처음 조합원 교육을 받고 방 모둠에서 다른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색하다고 한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공론화하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면서 쑥스럽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홈페이지에는 온라인 게시판이 있는데 그곳에서 자신의 건의사항이나 생각, 느낌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글에 댓글을 다는 것 하나하나가 부끄럽다고 한다.

(20) 온라인 게시판에 이사회에서 공지가 올라오고 그러는데요. 때로는 이에 대한 댓글도 달고 싶기도 하고 비판도 하고 싶은데 아직 처음이라 용기도 나지 않고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 이 글을 쓴 분이 누군지도 가물가물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쓴 글에 혹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고.. (윤인선)

그러나 조합원에서 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그리고 조합원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조금씩 자신의 마음의 문도 열려지게 되고 자신의 목소리가 어린이집의 운영에 조금씩 반영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감도 생기면서 조합원으로서의 소속감도 조금씩 들었다고 한다.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이야기 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신의 육아경험을 탑재하거나 육아에 대한 자료를 공유한 글도 많이 있으며, 은을 어린이집에 건의하는 내용도 있다. 한 조합원의 경우 어린이집의 시스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홈페이지에 건의한 경우가 있었다. 자신의 아이가 낮잠 자는 것을 싫어하는데 어린이집에서는 낮잠을 자도록 하고 있다.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다른 애들이 깨어있으면 그 소리에 시끄러워서 잠을 푹 자지 못할 수도 있으며, 또 교사는 아이들의 낮잠 시간을 활용하여 날적어도 적고 회의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낮잠을 자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잠들면 조용히 일어나서 놀게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아이들이 잠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너무 지루하다고 말을 해서 부모인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한다는 글을 썼다. 이 조합원은 글을 쓰면서도 개인적인 의견을 공론화시킨다는 것에 대해 다소 부담을 갖고 있었다. 이에 대한 댓글은 생각 외로 많이 나왔다. 댓글을 보면, 어린이집의 시스템과 상황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나 공식적인 창구를 활용하여 공론화하자라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자 다른 조합원은 공식적인 통로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실제 이사회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 한계가 있지 않냐는 의견, 방 하나를 안자고 조용히 놀리는 방으로 만들자는 의견 등이 있었다. 그리고 어떤 조합원은 댓글에서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홈페이지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동육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격려의 글도 있었다. 이에 해당 조합원은 의외로 많은 댓글에 놀라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문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방모임때 논의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면서 이사회에 정식안건으로 올리겠다는 의견으로 마무리 되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또 다른 글 중에 공동날적이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한 글이 있었다. 이것은 교사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였다. 교사들이 짧은 시간에 아이들 낮잠 재우고 각자의 아이들의 날적이에 글을 쓰는 것은 조금 벅찰 수도 있기 때문에 공동날적이를 쓰자는 의견이었다. 이에 어떤 조합원은 특별한 날에만 글을 쓰자, 또는 지금처럼 개인적으로 날적이를 쓰는 게 각각의 조합원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이며, 교사와 조합원들 간에 개별적인 소통을 하는 좋은 통로이자, 아이의 특성을 공유하고 교사를 통해 배우기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현행으로 유지하자 등 두 개의 의견으로 나뉘어졌다. 이 문제는 나중에 방모임에서도 논의가 되었고 결국에는 날적이의 취지에 맞게 지속시키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이러한 논의자체를 조합원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21) 현행 제도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과 생각을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서 의견을 나눌 여유가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서 홈페이지라는 공간을 통해 의견이 흘러나오고 그 의견이 또 다른 의견에 의해 길을 잡아간다면 그 논의들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변화의 시작이 되겠지요.(윤구)

이렇듯 온라인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표현하면서 담론을 형성하게 되었다. 담론은 쉬운 말로 풀이하면 “구술적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다. 먼저 구술적 이야기란 문자적 맥락이 주는 규정성과 한계에서 훨씬 자유로울뿐더러 사람들의 정서와 가장 일치하는 의사소통 방식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야기는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친근한 맥락을 상정한다. 담론이란 복수적인 개념이라는 데에 유의해야 한다. 즉, 사회적으로 볼 때, 한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적 담론으로서의 “상식적 이야기”가 있음과 동시에 “너의 이야기”가 있고 “나의 이야기”가 있다. 너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는 같을 필요도 없고 또 같을 수도 없다. 그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도출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규정하는 경험적이고 인지적인 공통분모가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한승희 1997 재인용).

4) 날적이를 통한 반성적 글쓰기와 성찰

은을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와 교사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의사소통을 한다. 아이를 데려다 주고 데려올 때 교사와의 만남과 전화통화, 교사와 함께 하는 방모임 등을 통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 이러한 의사소통 이외에도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독특한 장치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날적이’라는 것이다. 날적이는 공동육아의 첫 출발인 신촌의

‘햇살 어린이집’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날적이라는 이름이 아닌 ‘연락장’이라고 했다가 아이의 생활과 모습을 날마다 적는다고 해서 ‘날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즉, 날적이는 부모와 교사를 연결해 주는 소통의 도구로써 부모와 교사가 함께 쓰는 것으로 아이들의 활동과 적응력에 대해 간단하게 기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일기형식으로 아이의 하루의 모습에 대한 기록이나 기록자의 일상에 대한 기록 등 자신의 느낀 바를 있는 그대로 솔직히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22) 반성적인 글쓰기. 우리 아이가 9살이라고 했잖아요. 방학 때 집에 있으면서 그걸 우리 아이가 서재반 꽃아놓는데 사진을 보면서 킁킁 웃고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는 거죠. 날적이는 아이에 대한 기록인 것 같죠 그런데 대부분의 엄마는 자신의 일기장처럼 써요. 아빠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심리상태라든지. 인생의 덧없음. 육아스트레스. 어떤 아파는 부부싸움한 얘기까지. 시시콜콜 다 적어서 스물 몇 살 먹은 교사가 이것 어떻게 하지? 아이를 매개로 하는 소통의 장인 것 같다. 설을 푸는 듯 한 느낌 엄마의 일기처럼 반성과 반추의 결과물인 것 같다. 아이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라든지 가족의 생각이라든지. 지금 내가 바뀔 적에 내가 너무 부실했다.. 그러면 아이는 갈등을 겪고 있을 때가 있고 몸도 아프고 다른 아이와 관계 맺기가 힘들었었고. 내가 이래서 우리 아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식으로 쓰고 각오도 다지고.(최수희)

날적이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과거에는 어떠한 삶을 알았는지 그리고 지금은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살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재정립하게 해 준다. 그래서 날적이는 자신을 조망하는 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한 아이의 부모로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도구와도 같다.

윤인선은 날적이의 글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을 낮추리 하듯 썼던 글을 회고하며 그동안 지향했던 삶의 목표와 육아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자신은 부모로서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짐했다.

반성적인 글쓰기는 교사와 부모간의 날적이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모든 조합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날적이란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글을 통해 각자는 다른 조합원의 이야기와 생각을 엿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반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즉 간접경험으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마음을 다지는 장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다짐은 부모로서, 조합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 모습으로 전환된다.

(23) 어떤 부모가 홈페이지에 쓴 글을 보면 휴일에 아이들과 놀아주는 게 부담이 됐는지 직장핑계로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낚시하고 오는데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 자신이 오늘 하루 뭘 했는지. 너무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 괴로웠다는 글을 읽었어요. 이걸 저에게도 큰 공감을 일으켰던 내용이었어요. 저도 애들이랑 휴일에 노는게 귀찮아 이리 빼고 저리뺐던 기억이 났어요. 다른 애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앤데... 정말 무책임한 아빠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태효)

또한 날적이를 쓰면서 자신의 글을 읽는 담당교사와 개인적인 교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본인이 쓴 날적이를 누군가가 반응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사고와 느낌이 다른 사람과 공유됨을 느끼며 진지하게 써야겠다는 일종의 책임의식까지도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윤인선은 교사와 진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교사를 의미있는 타자로 생각하면서 소통하고 있었다. 또한 아마활동을 하고 나서 쓰는 온라인 날적이는 자신이 아마활동 중에 무엇이 미숙했고 무엇을 잘했으며, 어떠한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썼다. 이러면

서 본인은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 볼 수 있었고 일일교사로서 자신의 모습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매개물로 활용하였다. 이렇듯 날적이는 조합원들에게 부모와 교사들의 의사소통의 통로이며 반성적인 기능을 하게 한다. 그리고 인간의 내적인 사고와 외적인 행동을 분리시키지 않고 상호작용을 시키는 역할을 한다. 날적이가 어린이집의 생활과 가정에서의 모습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교사와 부모는 날적이를 통해 간접적인 만남을 갖게 된다. 보통 ‘날적이를 쓴다’는 것은 부모나 교사가 아이들의 모습을 읽고 이해한 내용을 글로 쓰는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 기록을 읽는 것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날적이를 쓴다’는 것은 어른들의 시각에서 보여지는 아이들 모습의 기록물이며 쓰기와 읽기를 통한 대화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쓴다는 것은 자신의 사고를 정리하고 종합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세계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글쓰기는 생활세계와 자신 사이에 거리를 두도록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글쓰기를 통해 우리는 생활세계에 더 가까이 간다(van Manen, 1990).

여기서 자신과 생활세계 사이에 거리를 둔다는 것은 성찰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성찰이란 짧은 순간이나마 뒤로 물러서서 전에 유심히 살펴보지 않았던 여러 가지 맥락들이나 의미들을 관찰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날적이를 통한 이런 성찰의 순간은 특히 상대의 글을 읽을 때와 비교적 장기간의 날적이를 읽는 과정에서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날적이는 부모와 교사 입장에서 볼 때 아이를 직접적으로도 만나고 타인의 눈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만남으로써 아이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는 여건을 제공한다. 아이와의 이러한 만남의 과정을 통해 부모와 교사는 자기 자신을 순수하고도 성찰적으로 만나면서 타자인 상대에 대해 이해의 깊이를 공유 하는 상호주관적 관계로 나아간다고 할 수 있다. 이 관계가 지속되는데 있어 자신과 상대에 대한 이해를 하게 하는 매개적 역할을 날적이는 지나간 자신

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함께 크는 우리 아이' 1999. 재구성).

5) 육아에 대한 아빠의 새로운 역할 인식

남자 조합원들은 직장일로 어린이집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사진인 이사장, 시설이사, 재정이사, 교육이사 등의 조합 임원이 되고 나면 조합의 내부 일에 관심을 갖게 되며 그 전보다는 활동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임수정은 큰애가 3살 때에 다른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임수정의 남편은 육아에 그리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리고 사설어린이집도 부모의 참여를 요구하지 않아 남편은 더더욱 자녀양육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애가 5살이 되고 공동육아에 대한 정보를 접한 이후에 은을 어린이집의 시스템에 매료되어 등록을 했다. 처음 신 조합원 교육을 받으면서 조합원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소개받았을 때 본인은 물론 남편까지도 공동체 활동에 부담스러워 하는 것을 느꼈다. 그래도 아이가 은을 어린이집에 있으니까 엄마는 지속적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했지만 남편은 약간의 거리감을 두며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총회때 이사진을 뽑는 자리에서 임수정의 남편이 이사진에 뽑히는 일이 발생했다. 그런데 그렇게 소극적이던 남편은 그때부터 은을 어린이집에서 하는 모든 일을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다. 이사진이 되면 아무래도 의무감과 책임감이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대부분 이사진에 남편들이 뽑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남편들은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공동육아도 하나의 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해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조합원들이 이사진으로서 참여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우선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

가 부담되기 때문이며, 주변의 시선도 많이 의식해서이다. 이사진은 철저한 봉사직이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이 없다. 그리고 직장일을 하는 남자들의 경우에 간혹 회식까지도 포기하고 어린이집으로 와서 회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사직을 맡는다는 것을 좀 꺼려하기도 한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육아가 주로 엄마의 몫으로 인식하는데, 남자가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 열심히 활동하면 주변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간혹 조합원 중에는 이사진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총회때 이사진을 선출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추천이 들어와도 본인이 강하게 거부하는 사례도 종종 목격됐다. 실제로 최현율의 경우를 봐도 본인이 이사회 후보로 추천이 되자 난색을 표명했던 적이 있다고 한다.

(24)그때에는요, 제 일도 있고 집안일도 있어서 이사진이 되는 것을 꺼려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사진들이 어린이지의 재정이며, 교사 채용이며 시설 관리며.. 모든 것을 다 신경쓰고 책임져야 하는데, 솔직히 자신이 없었거든요. 좀 두려웠어요. 막상 한다고 했다가 못했다고 욕만 먹을 것 같아서요.(최현율)

이렇듯 최현율은 처음에 이사진을 맡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그러다가 본인 스스로 다른 조합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최현율이 선출되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조합원이 선출되었는데, 나중에 그 조합원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겨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자신보다도 더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진을 담담히 맡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순간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조차 들 수 없었다고 한다. 그 후로 최현율은 비록 이사진은 아니지만, 은을 어린이집에서 하는 모든 활동에 최선을 다해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사

진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적극 동참하기 시작했다.

6개월 후에 또 다른 이사진을 선출하는 자리에서 그는 이사 추천이 들어왔을 때 겸허히 받아들였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되었다. 이사진이 되자 남들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길어봤자 1년 동안 어린이집을 위해 희생하자는 각오로 임했던 것이다. 그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공동육아를 지향하는 다른 어린이집과의 네트워크를 추진한 것이었다. 보통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국에서 주최하는 강연회와 토론회에 참가함으로써 공동육아의 진행흐름을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상황에 대한 진단과 방향제시를 하는 모습도 있지만,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어떠한 특색을 가지고 공동육아를 실천하는지 그 쪽의 이사진들과 만나 정보를 교류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 추진했는데, 의외로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의 공유는 회원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꾸준히 알려주고 있다. 이렇듯 이사진으로 활동하는 것은 본인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먹으면 오히려 만족하며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편,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으로 자신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빨리 적응시키고자 하는 마음에 본인이 먼저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어린이집에서 하는 행사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는 조합원도 있었다. 그 조합원은 자신이 직접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려다 주면서 바로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도착한 어린이들과 정답게 인사를 나누며 다른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만나게 되는 다른 부모들과 인사를 하면서 조금씩 적응을 해 나갔다.

(25)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애가 어떻게 하면 이 어린이집에 빨리 적응하고 다른 친구들과 잘 지내는가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떤 어린이집

은요, 문을 잠가버리고 절대 부모들을 못 오게 하는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정해진 시간 이외에 어린이집을 방문하면 되게 싫어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으니깐 좋고. 또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아이를 매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다른 애들하고도 인사를 함께 나누면서 제가 먼저 어린이집에 익숙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고서 제 아이를 적응시키려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 같아서요. 어린이집의 행사에 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그중 하나예요. 제가 어린이집에 있으면서 아이하고도 많이 만나고 다른 부모들과 친분도 쌓고 그래야만 저도 적응하고 제 아이도 같이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김동률)

공동육아를 처음 접하는 신입조합원들은 은을 어린이집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과 책무에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일단 그 공동체에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자신에게 어린이집에서 어떠한 책임을 맡아야 하는 직책이 주어졌을 때에는 그 일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자녀를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보낸 것은 나름대로의 교육 소신이 있고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은을 어린이집에 할애하는 것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결국에 그런 것은 우리 아이를 잘 키우자는 본인의 신념과 일치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은을 어린이집에는 남녀 구별 없이 자녀양육에는 모두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오히려 엄마보다 아빠의 참여를 더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돈을 내고 맡기기 때문에 아빠의 참여는 말할 것도 없고 엄마의 참여조차도 매우 제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곳은 우리아이는 함께 같이 키우자는 것이 모토이기 때문에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어린이집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래서 처음 신입조합원 때에는 부모 모두가 교육에 참여하는 것

을 의무로 하고 있으며 신입조합원들에게 공동육아에서 부모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아빠가 어린이집에 들락날락하면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안아주고 하는 모습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보여도 은을 어린이집에 가면 모두 다 자상한 아빠처럼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아이들과 함께 웃어주고 장난치면서 잠시나마 시간을 보낸다. 은을 어린이집에서는 정말 바쁜 일이 아니면 아이를 데리러 올 때 잠시라도 다른 아이들과 함께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도 해주고 놀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아빠들의 이런 모습은 흔한 광경이다. 그리고 아빠들은 다른 아빠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자극받기도 하면서 점차 육아에 대해 깨닫게 된다.

대부분의 아빠들은 자녀문제를 엄마에게 맡겼지만, 이곳은 엄마, 아빠가 함께 참여하여 키우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남녀 간의 역할 구분이나 차별이 없을 뿐 아니라 부부가 함께 육아 문제를 공유하고 남편이 가사 일에 참여하게 되는 분위기가 자연스러워진다. 그리고 그러한 육아에 대한 패러다임은 어린이집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선배 조합원과 상호작용의 결과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진다.

(26) 집안에서 손 까딱하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도 당연하게 생각하던 분도 여기에 있다 보면 바뀌어요. 공동육아와 가사일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많은 아빠들이 공동육아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서로 소통을 하기 때문이죠.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위해 뭔가를 하다 보면 그게 그대로 집안에서도 이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가정일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요.
(김태효)

부모가 직접 어린이집에서 참여하는 활동 중에 아마활동이라는 것이 있

다. 아마 활동을 하고 나면 아내들은 남편들도 육아의 어려움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찬성하며, 직접 아이들과 하루를 생활한 남편들도 뿌듯함을 느낀다.

(27) 우리 남편이 아마를 한번 해 본적이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남편도 그래요. 자기가 애들을 한두 명도 아닌 여섯 명을 하루 종일 데리고 있기는 처음이래요. 그것도 연가까지 내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애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엄청 좋아한다고 그러데요. 남자니까 여자와는 다른 뭔가가 있고 애들이랑 좀 더 활동적으로 뛰어놀기도 하면서 애들이 좋아하니까 남편도 덩달아 좋아하고. 그런데 엄청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웃음).(윤인선)

이러한 아마활동은 자기 자녀 중심의 시야에서 벗어나 모든 아이들의 엄마, 아빠로 자리 잡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어린이집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전체 아이들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일과와 고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특히 아마활동을 통해 아빠들은 직접 아이들과 함께 텅굴고, 같이 나들이를 가면서 공동육아를 직접 실천하게 된다. 그리고 아빠들은 가정주부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를 알게 되며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만큼 가정주부도 똑같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고 한다. 이렇듯 아마활동은 공동육아의 한 주체인 조합원이 조합뿐만 아니라 육아에 있어서도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 이렇듯 정체성은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지속적으로 재창조되며, 인간들은 능동적 행위자로서 자신의 정체성 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Roth, 2004).

조합원들은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의 참여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대화

를 나누면서 자신의 의식변화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이 다양한 조합원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스스로 좁은 사고의 틀 안에서 깨어나 자신을 다듬어가는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결국에는 시민운동에도 눈을 뜨는 사례도 있었다.

김태효의 경우에는 남자로서 공동육아에 참여하고 계신 다른 아빠들과 술자리를 우연히 가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좀 어색한 대화였다가 ‘육아’와 관련된 내용으로 화제를 전환하자 금세 서로 이야기할 소재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남자들끼리의 술자리에서 육아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 대화내용이지만,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조합원이라는 고리로 묶이다 보니 오히려 육아와 관련된 대화의 소재가 자연스러워졌다고 한다. 대화를 나누다가 다른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도 듣게 되고 또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면서 이러한 종류의 사회적 정치적 내용에 둔감했었는데 이 이야기가 자녀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관심이 많아졌고 오히려 이러한 계기로 시민운동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28) 어떤 아빠의 얘기를 들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사는 나라중 하나가 우리나라라고 하네요. 그러면 그 소고기가 어디에 있을까? 요즘 마트에 가면 거의 미국산은 안 팔린대요. 그러면 결국엔 뻥하죠. 음식점에서 파는 거겠죠. 그리고 정육점에서도 속여서 파는 경우도 많대요. 우리 애들을 생각해보니까 이제는 식단에도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김태효)

조합원 중에는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부분은 육아에 대한 패러다임. 즉 육아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효의 경우에 그는 남녀는 평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남녀의 생물학적인 조건에 따른 차이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히 남녀 모두 동일선상에서 같이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육아와 관련해서

는 다소 수동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래서 공동육아를 하는 남자로서 자신의 사고에 있어 일관성이 있어야 함을 인식하고 본인의 생각을 수정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그런 생각과 행동을 일치하게 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더욱 더 노력하고 있다. 김태효는 큰 딸이 초등학생인데, 가끔 교실을 청소하기 위해 부모님들이 오셔야 할 때 남자인 본인이 직접 학교로 간다고 한다. 처음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쑥스러웠는데, ‘엄마중심의 육아’의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하는 심정으로 최대한 본인이 참여한다고 한다.

(29) 저는 육아와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죽 그랬으면, 제가 애들 학교에 엄마보다 더 많이 찾아가서 청소해줍니다. 이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대부분 엄마가 오는데 저만 남자니까요. 그래도 이런 모습을 다른 분들이 많이 보시면 육아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변하지 않을까요? 조그마한 변화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김태효)

또한 아이들을 성적에 따라 획일적으로 일렬로 세우는 현 교육제도에 대한 반감은 조합원들 간에 공동육아의 이념을 더욱 더 공고히 하고 있으며, 몇몇 조합원이 주축이 되어 바람직한 교육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 이른다. 이들은 책 몇 권을 선정하여 함께 읽고 느낀 바를 나누며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개인적인 성장을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은 이 공동체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육아를 하지 않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것을 전해주거나 본인이 몸소 실천함으로써 해당 조합원은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즉 조합원들은 자신이 공동체 학습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교육이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된다.

2. 조합원들의 육아방식에 피드백 되는 모습 분석

은을 어린이집의 조합원들은 다양한 학습과정을 통해 조금씩 공동육아의 개념을 체득하게 되고 진정한 공동육아의 조합원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 이장에서는 조합원들이 공동육아를 하면서 그들의 육아방식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주변적인 참여’에서 ‘주도적 참여’로의 변화

은을 어린이집의 조합원들이 처음 공동육아에 적응하는 시기에는 분위기도 익히고 아이들도 적응시켜야 하는 부담감으로 어린이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에 다소 적극성이 떨어진다. Lave와 Wenger(1991)에 따르면 합법적 주변 참여인들은 새롭게 참여한 공동체의 가치, 규범, 흥미 등에 낯설고 불편해하며 의사결정에 있어 소극적이게 된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다른 조합원과 어느 정도의 상호작용이 있고 아이들에 대해 조금씩 파악하게 되면 공동육아어린이집에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요구도 하는 등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며 그만큼의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효진은 타지에서 온지라 친구도 없었고 친인척도 없는 상태에서 공동육아로 첫 아들을 맡긴지 1년이 지났다. 성격도 소심하여 처음에는 자신의 목소리를 잘 내지 못했는데, 공동육아를 하면서 조합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자연스럽게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적응을 하게 되었다. 1년 동안 자신의 아들과 다른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어린이집의 프로그램상 몇 가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그는 이런 건의는 조합원으로서 당연한 권리이고, 또 이것이 우리 자녀를 위하는 길이라고 믿었다.

(30) 조금 극성이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은을 어린이집의 주체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적극적인 방식으로 제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자극을 주자는 의견도 내놓기도 하고.. 물론 이게 교사의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왕에 하는거 어린이집을 알차게 만들어야 좋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의견을 내놓은 적이 있었죠.(이효진)

이효진의 건의사항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식단문제, 가로등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다른 조합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과정은 학습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다른 조합원과의 의미협상을 통해 점차 자신의 정체성을 발달시켜 나가게 된다. 이번 일을 통해 이효진은 주변부에서 점차적으로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조합원으로 변모하게 된다.

김동률의 경우도 처음에는 직장생활로 바쁘는데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의 참여를 요구하여 부담스럽게 생각했다. 그래서 공동육아를 포기할까도 생각을 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아빠들과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들과 술자리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직장동료와는 다른 성격의 편안하고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 나갔다. 그런 아빠들의 연대는 경쟁의식에 지친 직장에서의 피곤한 삶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역할을 했으며 동시에 어린이집에 주변인에서 주도적인 참여자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김동률은 주변인에서 주도적인 참여자로 바뀌는 모습은 무엇보다도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며 그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은 열정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대상은 어린이집 교사가 아니라 부모인 바로 자신임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공동체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해 주는 초석이 되었으며, 주변의 조합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갖게 되었다. 이는 자신

이 더 이상 주변인이 아닌 교육 주체로서의 인식을 하게 된다는 의미가 된다.

(31) 일반 사설 유치원은 부모의 참여라고 해봤자, 일년에 한두 번 있는 발표회참가해서 우리애가 하는 모습을 캠코더로 찍는 것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직접 아이들을 가르쳐보기도 하고 함께 나들이도 가고 하니까 내가 바로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고, 대충 가르쳐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교육의 주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김동률)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의 다양한 활동은 가정에서의 아빠를 끌어들이므로써 엄마를 중심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기존의 육아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아빠들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서 대부분 다른 아이들 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놀면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도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즉 아빠들은 어린이집에서 하는 활동으로 아이들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었으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아이를 돌보는 것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32)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시스템상 아빠의 참여는 절대적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 아이를 맡긴 아빠의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엄마와 함께 육아를 담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활동도 하고 모듬모임도 하고 어린이집 청소도 하고 시설보수 등등을 하면 자연스럽게 조합원으로서 어린이집 소속이 된 거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애들한테도 관심이 가게 되고.. 특히 아마활동하고 나면 아이 다양한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는 것 같아 재미있어요. 거기에 제가 아이들의 시각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 또 애들도 까르르

웃고..(김태효)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참여하는 아빠, 엄마들은 아마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아이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 있는 모든 아이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아마활동은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지닌 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개별 부모만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영역을 접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마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아이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게 해준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 외의 다른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아이들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우리 아이의 위치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는 자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대화내용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이어서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를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다. 또 아마활동을 하면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느낌을 받는데, 이러한 자극으로 공동육아 어린이집 활동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힘을 받는다.

<한 조합원이 쓴 아마일지>

(33) 오랜만에 아이들과 한 아마였지만, 작년 이맘때에 비해 아이들의 생활이 많이 안정된 느낌이 들었다. 아이들 간의 알듯 모를듯했던 긴장감도 예전보다는 많이 사라진 듯 하고...한해를 마무리해가는 시점이라 그런지 서로에게 많이 적응되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듯 한 느낌이 들었다.

2) '학부모'에서 '부모'로의 변화

다른 조합원과의 의사소통과 다양한 활동은 자녀양육에 대한 철학을 재 확립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교육관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조합원들은 유사한 환경에서 함께 비슷한 학습과정을 거치면서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그리고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조합원들은 실천방안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반성하고 사고하며 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조합원들의 의도적인 노력과 반추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 조합원들은 함께 변화를 추구하며 경험을 확장해 나가는 등 자기성장의 과정을 겪는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실천한 방법과 과정은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고 그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며 새로운 학습을 하고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몇 조합원들은 기다림과 인내의 미학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 지금 만연하고 있는 성적제일주의에서 벗어나 아동의 편에 서서 그들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것을 발견하도록 해 주며, 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들을 억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가장 좋은 교육은 일상적인 부모의 삶의 과정에서 배우는 가르침이 참된 교육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런 깨달음이 있기까지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끊임없는 반성과 실천을 통해 가능하다.

은을 어린이집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늘 대두되는 사교육과 관련한 문제에서도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사교육에 대한 기존의 입장이 바뀐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명문대에 보내는 데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아이의 정신건강과 행복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된다. 또한 뜻이 맞는 조합원들끼리는 함께 도서를 공유하며 아이를 어떻게 해야 잘 키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함께 정리해 나간다.

일부 조합원은 공동육아를 하지 않는 다른 부모들과 대화를 할 때 사교육에 관해 서로 공유점을 찾기가 매우 힘들다고 한다. 함께 그 부분에 관해 논의를 하는 과정이 없었기에 기본적으로 공동육아의 이념에 대해 공

유할 수 없고, 자신이 학습하고 깨달은 것을 다른 부모들과 나누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공동육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과 교육적 소신이 비슷한 부모들에게 공동육아의 이념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가치를 나누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육아를 다른 부모에게 전하기도 하고 아이를 공동육아 시키도록 권유하기도 한다.

(34) 사교육과 관련해서는 아주 민감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여기에서 교육도 받고 다른 선배 조합원과 얘기를 나누면서 사교육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밖에 나가도 다른 부모들의 말에 솔깃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제 주변 친구들에게 아이를 공동 육아시키라고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설득시켜요. 지금부터 이렇게 아이를 잡을 필요 없다고요.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들의 행복과 자유라고요.(최아영)

허지혜는 은울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나서도 아이들에게 인지교육을 시키는 것에 반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처음에 은울 어린이집에 문을 두드린 것은 첫째애가 4살 때 영어유치원에서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로 공동육아어린이집으로 왔지만, 아직 인지교육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상태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우리 애에게는 특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었다. 그런데 다른 조합원들과 사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새롭게 자신의 문제점과 교육관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무비판적이고 의심을 하지 않으며 받아들였던 사교육문제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존의 사고의 틀과 삶의 태도를 재고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허지혜는 기존의 사고의 틀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그는 사교육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이해는 하면서도 그것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답답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기

시작했다. 즉 사교육에 대해 저변에 형성되어 있는 생각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의 정당성에 관해 생각해보고 자발적인 반성을 하기 시작했다. 스스로에게 또는 주변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반성적 질문을 제기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틀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다.

(35)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을 한순간에 바꾸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이야 공동육아를 한지 조금됐으니 가능한 거지. 그때에는 내 사고의 틀을 변화시키는 게 어찌나 힘들고 벅차든지... 그리고 왜 나는 계속 이모양 이꼴일까? 왜 마음을 잡고 있어도 흔들리고 그럴까?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봤는데요. 결국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있어서이고, 삶의 주체가 온전히 내가 아니어서 그런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남들이 뭐 하니까 나도 뭐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남이 어떻게 하든, 난 이렇게 한다고 가야 옳은 거죠. (허지혜)

허지혜는 이렇듯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인지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이 부모에게는 하나의 불안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실제로 이런 공동육아의 방침에 반기를 든 사례도 있다. 어떤 조합원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아이들을 너무 놀게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다른 예체능 교육이나 특기교육에 기웃거리기도 하고, 다른 조합원 몰래 영어나 기타 과목을 배우는 조합원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다른 조합원과의 의견을 교환해감으로써 사교육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씩 해소해 나가고 있다. 조합원들은 그런 과정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관이 확립되며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고 공동육아에서 지향하는 바를 실천해 나간다. 특히 부모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은 사교육에 의해 아이들이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부모들의 생활 속에서

아이들에게 주는 가르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다. 즉 ‘생활교육을 통한 가르침’이 진정한 가르침이며 어릴 적에 이를 가르치는 것이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알게 된다. 이걸 깨닫고 나서 부모들은 주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며 ‘안정감’있게 자녀를 키울 수 있게 되었다.

(36) 우리 애는 지금까지 외부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어요. 어떤 부모는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태권도라도 다니라고 하는데, 굳이 학원에 다닐 필요가 있나요? 그런 거라면 차라리 아빠가 가르쳐주는 게 낫지. 물론 저녁때에 가능하겠지만. 그리고 주말에는 아빠하고 같이 축구도 하고 뛰어놀고. 가장 좋은 교육은 부모와 함께 하는 것 같아요.(윤인선)

(37) 아이들에게 최고의 것,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생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교육을 우리아이가 받고 싶어 하는 바람도 있지만, 그건 뭐니 뭐니 해도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주는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모범을 보여야 하고. 밖에 나가면 쓰레기 줍는 모습을 보이잖아? 그러면 우리 애들도 밖에 나가서 쓰레기를 줍게 되더라고. 내 모습을 아이들이 그대로 본받는 것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아이들에게 인지교육보다는 더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허지혜)

이렇듯 공동육아 어린이집 조합원들은 사교육을 통한 인지교육과 성적 제일주의에서 벗어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내면의 성찰과 주변 조합원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조금씩 자신의 교육관을 확립해 나간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중요한 덕목은 신뢰와 사랑이며, 그것 없이는 어떠한 교육도 올바르게 쌓아갈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남들을 밟고 도약하는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주변의 사람과 손잡고 격려해주며 함께 가는

것이 밝고 가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임을 알려주게 된다.

3) '부모 시각'에서 '아이 시각'으로의 변화

조합원이 되기 전 부모들은 아이들을 떠올리면 미성숙한 존재로 생각하곤 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하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공동육아를 하면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은울 어린이집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이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신의 생각과 주관이 있으며 스스로 생각하여 결정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공동육아에서 중요한 프로그램인 '나들이'의 경우에도 교사가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시간을 주며, 나들이를 하면서 가지고 오는 자연적인 소재를 가지고 오후활동을 하도록 격려해 주고 있다. 또한, 아이들 간에 발생한 문제나 사건을 어른의 시각에서 바로 해결해 주기 보다는 아이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등 아이들의 생각을 많이 존중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교사중심의 교육방식에 익숙한 조합원은 이러한 은울 어린이집의 교육방식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도 간혹 발생한다. 또한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어떠한 일을 제시하되, 절대 강요하지 않는다. 선택이 본인이 스스로 하도록 하고 부모는 조언자로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을 할 뿐이다.

정인혜는 공동육아에 참여하기 전에 아이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함께 아이를 통해 자신의 꿈을 성취시키려는 보상심리가 있었지만, 어린이집에서 많은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관련서적을 읽으면서 사고가 조금씩 변화하였고 아이에 대한 욕심이 자제되고 조절되었다고 한다.

(38) 저는 처음에 우리 애가 태어났을 때는 건강하게만 태어나라로 했는데 아장 아장 걷고 말을 하니 욕심이 생기는 거였어요. 적어도 판사, 검사, 의사로 키워야지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사교육을 금지시키잖아요. 그리고 애들을 놀 때는 놀게 해줘야 한다고 하잖아요. 처음엔 많이 망설이고 조금함도 많이 생겼는데요. 이제는 제가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정인혜)

이렇게 아이를 향한 본인의 욕심을 내려놓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행복이며, 자신이 그 일을 즐긴다면 그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한다. 허지혜도 아이에 대한 욕심이 많았다. 특히 주변 아이들과 비교가 되는 것 같아 불안해하기도 했지만, 어린이집 선배 조합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었고 자녀가 얼마나 다른 아이들보다 우월한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질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점이 감사한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로 결심한다.

은울 어린이집에서는 어른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별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공동육아를 이해하지 못한 조합원이 처음 아마 활동을 하면서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는 아이들과의 문제에 개입하여 잘못을 따진 후 다른 아이를 혼내고 별주는 경우이다. 그러나 공동육아에서는 먼저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고 아이들의 말을 존중해 주면서 잘못된 점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도 있지만, 아이들도 하나의 고귀한 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은울 어린이집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준수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행동을 한 순간에 바꾸기는 쉽지가 않은지라 많은 시행착오 끝에 조금씩 바뀌나간다.

(39) 보통 저는 우리아이들이 잘못하면 소리부터 질렀어요. 그리고 정말 창피한 일이지만, 매부터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린애한테 설명을 해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들을 것 같고.. 그리고 귀찮고.... 일일이 설명할 에너지와 시간도 없고..그런데 여기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았어요. 어떤 선생님은 다른 애들과의 다툼에 무려 30분 이상을 투자하시면서 애들하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명 받았어요. 결국엔 애들도 다 이해하며 좋게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저 같으면 당장 몽둥이 들고 행동을 고쳐줬을 텐데, 그 선생님은 계속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그렇게 한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을 본으로 삼아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게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더 훌륭한 모습으로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니까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았어요. (임수정)

윤인선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자신의 사고와 가치관을 심도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반성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동료 조합원과의 의사소통과 조합원교육, 서적과 강연을 통해 스스로 발문해 보게 되었으며, 현재 자신의 모습을 반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비록 이러한 반성의 기회는 즉각적인 행동의 변화로 확고히 굳혀지지 못했지만, 그들의 습관적인 행동이나 사고는 점차 변화되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편협적인 사고의 틀에 얽매이지 않으며, 열린 사고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변화의 주체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윤인선은 육아와 관련해서 다른 조합원이 아이들을 다루는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을 하면서 많은 참고를 했다. 그는 첫째 아이를 마치 어른을 대할 때처럼 이야기했고 아이들도 또한 그렇게 행동하기를 기대했다. 아이를 혼낼 때에도 마치 어른을 혼내는 것처럼 상황하게 설명하곤 했다. 그런데 은을 어린이집에서 다른 조합원들의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다. 지

금까지 윤인선은 부모의 시각에서 아이들에게 지시하거나 설명하려고 했지 아이들의 시각으로 사태를 바라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다른 조합원의 경우는 아이들의 시각에서 문제 상황을 바라보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주었다. 이런 모습은 윤인선에게는 신선함으로 다가왔고 지금까지 첫째에게 얼마나 나쁜 엄마였는지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40)다른 조합원이 아이들을 혼낼 때 보면요, 제가 더 숙연해져요. 어쩔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잘 하지? 저 같으면 흥분해서 화부터 낼 텐데 애들 입장에서 왜 그런 행동을 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은 제가 확실히 본받을 만 해요. (윤인선)

때로는 자녀의 모습에 갑자기 화가 나서 예전의 본인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때도 그러나 예전에 비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좋아졌다. 과거에는 아이들이 잘못할 경우에는 무조건 화내고 혼냈는데, 지금은 아이들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존중해주는 자세로 바뀌었으며, 아이들의 입장에서 설명해주고 그들 스스로 규칙을 정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그러자 아이들의 모습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모해 감을 경험하였다. 윤인선은 딸이 밖에 나가서 어떤 물건을 사달라고 떼쓰는 모습으로 많이 힘들어했다. 그때마다 윤인선은 부모의 입장에서 ‘이건 이래서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혼도 내봤지만 아이는 막무가내였다. 그래서 밖에 딸과 함께 나가는 것을 무척이나 꺼려했다. 그런데 아이들도 자신의 의견이 있고, 책임감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여 아이에게 물건 살 때의 규칙에 대해 설명해 주니까 오히려 딸도 그 말뜻을 이해하고 생각 외로 잘 따라와주었다.

(41) 그전에는 왜이리 마음의 여유가 없었는지. 한번도 아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였는데 말입니다. 일례로 장을 보러 가기 전, 딸에게 얘기해요.. 너가 지금 필요한 거 뭐가 있어? 그러면 간혹 나오긴 하지만, 그건 장보면서 같이 사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제가 얘기를 해요. 이것 말고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신중히 다시 한 번 생각해 봐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즉흥적으로 사달라는 말을 안 해요. 애들은 어른들의 말길을 다 알아들어요.(윤인선)

허지혜의 경우에는 첫째 애가 4살 되던 때에 영어유치원에 보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것에 너무 힘들어했고 본인의 영어실력에 위축이 되는 모습에 안쓰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생각하며 계속 보내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적용할 만큼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흥미도 없고 유치원에 가는 것을 힘들어 하여 결국엔 고심 끝에 은울 어린이집을 선택하게 된다. 비록 영어유치원에서 1여 년 동안 있으면서 돈과 시간은 빼앗겼지만, 다행히 첫째 애와 은울 어린이집과 잘 맞아 하루하루 재미있게 보내고 있다. 그리고 2년 후에 둘째 애도 은울 어린이집으로 보낼 때에는 부모가 자신의 생각을 아들에게 주입시킨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어린이집을 방문해 주변 환경과 어린이집을 둘러보며 아이의 의견을 직접 물어보는 등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여유는 공동육아에서 지내는 동안 내재된 학습의 효과이다. 그러한 방식으로 하다 보니 오히려 부모의 마음이 이전보다도 편안해졌고 큰 수고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허지혜는 부모의 선택이 아이들보다 더 옳다는 생각은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것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조합원들의 변화과정은 기본적으로 다른 조합원과의 관계맺음으로 시작

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속에서 학습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가져온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조합원 각자에게 육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육아에 대한 그들의 태도도 바뀌었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4) ‘내 아이’에서 ‘우리 아이’로의 변화

공동육아 아마 5계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에 들어서면 자기 아이만 찾거나 자기 아이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뛰어가지 말자. 둘째, 어린이집에서 먼저 마주친 아이들의 이름을 큰소리로 불러주고 함께 덩굴며 정다운 대화를 나누자. 셋째, 특히 울고 있거나 외로워 보이는 아이에게 더욱 더 그러자. 넷째, 아이들이 몰두하고 있는 놀이나 활동에 즉석에서 동참하여 친구가 되어주자. 다섯째 어린이집에 들어섰을 때 자기 아이가 놀이나 활동을 중단하고 자기에게로 쏠살같이 달려오기를 기대하지 말자.

아마 5계명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공동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바로 내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를 돌보는 것이다. 은을 어린이집에 있는 모든 아이가 바로 내 아이이며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면 무조건 그들에게 다가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아이의 입장에서 자신은 도울 수 있는 부모 같은 존재가 여러 명이 되며, 꼭 내 부모가 지금 나에게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부모가 있기에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다. 다른 부모에게도 자기 부모에게 하듯이 반말로 물어보고 아저씨라는 말을 쓰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의 별명을 부르며 친근하게 다가가간다. 이러한 공동육아의 문화 덕에 아이들은 물론이거니와 조합원들도 이에 공감하여 어린이집에 들어가면 자신과 가장 먼저 마주친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며 반긴다. 그러면 그 아이도 별명을 부르며

인사를 한다. 그리고 간혹 마실로 집을 방문하면 더욱 더 그 아이와 조합원과는 친밀감이 쌓이게 된다. 이런 관계가 1년 이상 지속이 되면 말 그대로 다른 집 아이가 내 아이처럼 느껴지는 기분을 느낀다고 한다. 그만큼 서로간 많은 접촉이 있어왔고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 보니 남의 아이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에는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고 꼭 그 아이에게 상황에 대해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한다. 마치 자신의 아이를 다룰 때와 같이 다른 아이도 똑같이 한다. 남의 집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에 대해 조합원들은 서로 고맙게 생각한다. 또는 아마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인 듯 상세히 해준다. 본인의 자녀라 할지라도 특정한 행동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활동을 한 분이 설명을 해주면 그 자체로 감사히 여긴다. 반대로 본인도 아마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자녀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보이는 특징들을 해당 부모에게 설명함으로써 육아에 도움을 준다.

(42) 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장난을 치는지, 애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마활동을 하시는 부모들이 한 번씩 보시고 우리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새삼스럽게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아이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고요. 아무튼 아마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녀를 같이 키운다는 생각이 들어요.(최수희)

은을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 아이’로 느껴지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들과의 래포가 형성되어야 한다. 처음에 다른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게 어려울 것처럼 느껴졌으나, 의외로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 ‘별칭이 뭐야’라며 달려들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아이들과의 래포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간혹 부모들끼리 마찰이 있는 경우나 또는 아이들과의 싸움으로 자칫 감정이 상한 부모들의 경우에는 다른 아이들과 친근하게 만드는 데에 다소 어색한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한다. 아무리 공동육아의 방침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마음을 통제하기는 어렵기에 다시 원상 복구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반면에 이런 어려운 분위기가 극복된 사례도 있다. 이효진의 아들이 임수정의 딸을 때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효진은 임수정과 그 딸에게 늘 무겁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들 간의 싸움이지만, 남자가 여자를 때렸다는 점과 무엇보다도 일방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때려서 울렸다는 것에 마음이 많이 불편했었다. 비록 임수정에게 가서 사과를 했지만, 미안한 마음에 그 이후 선불리 임수정에게 다가가지 못했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발생한지 며칠 이후, 이효진은 아들을 데리러 은울 어린이집에 갔는데 임수정이 이효진의 아들을 진심으로 안아주며 뽀뽀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효진은 가슴이 뭉클해 졌고 이게 바로 공동육아의 정신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본인도 다른 애들에게 사소한 어른들 간의 감정다툼이 아이들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다고 한다.

은울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아이’로 여겨진다는 것은 어린이집에서의 활동에 적극성이 있다는 말과 거의 일맥상통한다. 조합원이 은울 어린이집에서의 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면 어린이집 내에서의 활동도 위축이 되고 자연스럽게 다른 아이들을 챙겨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은울 어린이집의 분위기에 익숙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합원은 처음에는 어린이집에 적응하기 위해 다소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은울 어린이집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점차 그 분위기에 젖어들면서 ‘내 아이’에서 ‘우리아이’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내 아이에서 우리 아이로의 변화는 다른 조합원들과 자녀이야기를 할 때에도 큰 위력을 발휘한다. 다른 조합원들도 내 아이에 대한 상태와 성

격, 특징 등을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이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황을 잘 공감할 수 있으며, 그 아이에 맞는 해결책도 제시할 수 있다. 정인혜는 이런 공동육아의 장점에 큰 매력을 느꼈다. 공동육아하기 전 일반 사설 어린이집에 보낼 때에는 이웃 간의 교류가 전혀 없었고, 본인 딸하고 친하게 지내는 부모하고도 거의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고 설사 교류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 양육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다고 한다. 그러나 공동육아를 하면서 한 가닥의 빛을 본 거 같으며 좋아했다. 그리고 육아에 대한 정보도 쉽게 나누며 자녀발달단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상대방 가족의 육아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되어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43) 일반 사설 어린이집에 보내고 4살 때 여기에 왔는데요. 저에게는 이곳에서 육아에 대한 많은 정보는 물론 육아에 대한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이효진)

(44) 지금까지는 내 아이만 신경 쓰면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애들이 특히 우리 방에 있는 애들이 다 내 애들 같아요. 그게 시야가 넓어진 거지.(임수정)

(45) 내 아이만 잘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내 아이에게만 맞추려고 하는 어른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아이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내 아이의 동반자로 살아가야하는 지역의 다른 아이들도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야 하지 않을까요?(최아영)

5) 육아의 몫이 '엄마'에서 '아마'로의 변화

일반 사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에는 자녀양육에 있어서 엄마의 역할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남녀 구별 없이 모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사람이 일정한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를 찾는 것이 조합원의 임무이며, 이러한 조합을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참여가 절대적이다. 예를 들면 은을 어린이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힘과 기술을 요하는 것에는 아빠들도 필요하다. 대부분 공동육아에 아이를 맡긴 아빠들은 공동육아의 방침에 대해 알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만, 막상 안하던 일을 하게 되면 버거워 하기도 한다. 특히 아마활동을 할 때면 더더욱 그러하다. 집에서 애들하고 시간을 보내본 일이 거의 없었던 아빠들은 한두 명이 아닌 애들에게 어떤 재미있는 활동을 해야 하는지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꺼려하게 된다. 최현율은 공동육아 3년차 아빠이다. 그는 아직도 처음 아마활동을 했을 때를 잊지 못한다. 1년차에 아마활동을 하고 나서는 아이를 다룬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깨달았고 두 번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다른 남자 조합원들과 나누게 된다. 아빠들은 최현율의 고충을 잘 이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아이들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본인의 자녀를 다루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충고를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인의 자녀와 함께 지내는 아이들의 이름은 기본이고 평소 많은 접촉이 있어야 아이들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수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아빠들의 양육 상담은 대부분 아빠들의 모임인 술자리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아빠들도 허심탄회하게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눈다고 한다.

(46)아빠들하고는 따로 술자리를 종종 가져요. 두 달에 한번정도. 이 모임은 한마디로 서로의 입장을 토로하는 분위기에요. 그래도 결론은 똑같아요. ‘우리가 잘하자’.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못했다’. ‘여기는 공동육

아를 하자는 곳인데 너무 엄마위주의 육아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 남자들이 의기투합하죠.(최현율)

아빠들 간의 이런 술자리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육아정보도 나눌 수 있어 아빠들의 육아참여를 돕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 아빠들의 술자리는 경쟁적인 직장생활과는 달리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긴밀한 연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모임이기에 마음의 안식처를 원하는 아빠들에게는 더욱 의미가 있는 곳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으로 아빠들은 공동육아에서 본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며 한편으로는 자녀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줄어든다고 한다. 자녀는 엄마, 아빠가 함께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키울 때에도 함께 키우고 나중에 자녀의 미래도 아빠의 몫이 아닌 아내와 함께 담당해야 하는 것임을 아내와 함께 공유하다 보니 심적으로 자유로움을 느낀다고 한다.

특히 주변 다른 조합원의 집에 마실갈 때 그 집의 아빠들이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육아에 대한 사고가 확장된다. 처음에는 아빠들이 서로 만나면 군대얘기나 정치, 경제 얘기를 주로 했지만, 그런 분위기에서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린 이집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육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의 관심사는 ‘온통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잘 키울까?’ 이다.

(47)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마실을 통해 우연히 봤는데, 정말 장난 아니네요. 전 집에서 손 까닥 안하며 지냈는데, 여기 아빠 보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와서 또 다시 아내일도 도와주고..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임수정)

이처럼 아빠들도 엄마처럼 육아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짐에 따라 아빠들의 모임도 조금씩 활성화된다. 아빠들은 자신들끼리의 연대를 강화하며 조합원으로써 조합에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아이를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잘 키울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폭넓은 논의를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진행한다. 이렇듯 공동육아에서는 엄마 못지않게 아빠도 육아에 있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녀양육에 아빠가 적극 관심을 갖게 된다.

(48) 어디를 놀러갔는데요. 역시 아빠랑 엄마랑은 좀 달라요. 엄마는 애가 어디 다칠까 노심초사하는데 아빠는 애들을 막 다뤄요. 이게 꼭 나쁜 것은 아니죠. 그리고 징그러운 벌레도 잡아서 애들한테 보여주고. 애들도 좋아하더라고요.(윤인선)

아빠들은 육아뿐만 아니라 집안일까지도 아내와 가사 분담할 정도로 의식에 변화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게 더 자연스러운 것이라 믿고 있다. 아내들도 그러한 행동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모든 것을 엄마에게 일임했던 아빠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주말마다 거르지 않고 한다. 실제로 집안을 거의 하지 않는 남편들도 은을 어린이집에서 청소를 할 때면 정말 열심히 청소한다고 한다.

V. 논의

부모들이 처음 은울어린이집에 왔을 때 다양한 계기로 온다. 대부분의 조합원은 은울 어린이집이 자신들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해주기를 원하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접근했다가 이제는 본인이 이곳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겠다는 입장으로 바뀌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조합원들은 공동육아를 하는 조합원으로서의 역할을 비로소 발견했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 교류를 통해 학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학습을 한다는 것은 본인의 노력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흥미로운 것은 아빠들이 부모로서 정체성이 변화된 모습이다. 아빠들의 학습형태는 형식적인 교육의 장에서 이루어진다고보다는 다른 아빠의 모습을 모델링(modeling)하면서이다. 다른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그들의 모습을 하나의 역할모델로 생각함으로써 본인의 사고와 행동이 변화됨을 볼 수 있었다. 이렇듯 자신의 모습이 변화되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추동력을 얻게 된다. 그러한 모습에서 중요한 것은 육아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철학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한 공감대는 조합원들과의 상호작용을 거쳐 공동체의 비전으로 만들어진다. 공동체가 지향하는 큰 틀 속에서 조합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 비전을 실천하고 활동을 해나감으로써 공동체가 성장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 성장에서 바탕이 되는 중요한 추진력은 바로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조합원들의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학습을 통해 가능하다. 따라서 공동육아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학습'이며, '학습'이 공동체의 문화로 자리잡기 위해 다양한 모임과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학습은

단순한 조합원 교육을 통한 학습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스스로 깨닫고 변화하는 등 공동체내에서 누군가에 의해 자극을 받음으로써 생성되는 것을 말한다. 조합원 중 일부는 Dewey가 교육 방법으로 제시한 반성적 사고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반추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성적 사고는 의식 없이 떠올리는 막연한 의식의 흐름이 아니라 이전의 습관을 깨는 문제 상황을 계기로 그것을 통찰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검증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 그 결과로 비인지적 수준의 사고를 인지적인 수준으로까지 발전시키게 되는 것이다. 허지혜와 윤인선의 경우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두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기 전에 반성적인 사고를 통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에 메지로우가 주장한 전환학습에서 관점의 변화와 생성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조합원들은 공동체에서의 참여를 통해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고 양육에 대한 의미를 다시 만들어 나가는 시도를 했다. 이러한 전환(transformation)과정은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느끼는 방법을 그 동안 제한해왔던 전제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과정”이며, 이전의 신념과 태도, 가치, 감정들로부터 자유롭게 해 준다는 점에서 해방적이다. 더 나아가 은유 어린이집의 조합원들의 학습양식은 Engeström의 확장학습(expansive learning)이론으로도 살펴볼 수 있다. 확장학습(expansive learning)이론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상호작용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내에서 학습자들이 참여하는 학습과정을 분석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Engeström은 활동체제에서 변화와 발전의 동력으로서 모순(contradiction)과 갈등(conflict) 그리고 부조화(discoordin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갈등에서 오는 활동체제의 변화의 불안정성은 “확장(expansion)” 즉, 활동체제의 전개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Kuutti(1996:34)는 모순들이 문화역사적 학

습이론의 개념구조 안에서 어떻게 분석적으로 이용되는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활동(activities)은 고립된 단위가 아니고 계층구조와 네트워크의 교차점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활동들은 다른 활동과 환경의 다른 변화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외재적인 영향은 요소들 간의 불균형을 야기시키면서 몇몇 활동의 요소들을 변화시킨다. 활동 이론은 요소들 내부, 요소간의 사이, 다른 활동 간의 사이, 그리고 한 활동의 서로 다른 발달 국면 사이에서의 부조화를 지칭하기 위하여 모순의 용어를 사용한다. 모순은 스스로 문제(problems), 분열(ruptures), 붕괴(breakdown), 충돌(clashes)등으로 분명하게 나타난다. 활동은 발전의 원천을 모순으로 본다. 활동은 모순을 통해 작용하는 과정에 실제로 항상 존재한다. 활동체제내의 내적인 모순은 체제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요인이다. 모순은 창의적인 개혁과 활동을 구조화하고 실행하는 새로운 방법의 기회들을 나타내며(권인탁 2008 재인용), 모순에 의해 학습이 촉진된다고 보았다(Fosnot,1989). 즉 모순과 갈등은 갈등과 긴장의 원인을 제공하지만, 그 공동체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모순의 등장과 악화, 해결 등은 활동체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이다(Engeström 1987,2000). 은을 어린이집에서 조합원들 간에 나타나는 모순과 갈등은 앞에서도 볼 수 있듯이 또 다른 학습활동으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러한 종류의 내적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은 인간 학습의 더 높은 수준을 증진시키며, 이러한 학습은 학습체제에서 학습의 결과물이라고 말하는 인간의 의식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조합원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를 꾸준히 내면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그들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교육이념에 확신을 얻으며, 외부자의 말에 쉽게 현혹되거나 휩쓸리지 않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자신감을 가지면 자신의 모습이 이전보다는 떳떳해 지고 적극적이며 주위 사

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선배조합원으로 후배조합원에게 공동육아의 철학과 육아에서의 기본원칙을 이야기할 때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도성을 띄게 되며 이러한 모습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조합원들 더 나아가 공동체의 성격을 공고히 할 추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은울어린이집을 지속시키는 것은 어린이집 내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토론과 토의, 어린이집 이외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모임,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본인을 바꾸려는 노력과 끊임없는 자기성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순이나 갈등을 극복해 나가면서 변화해 나가는 것이 공동체 학습의 중요한 요소임을 볼 수 있다.

VI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부모들의 공동체 안에서의 경험과 그들의 학습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며 육아 공동체 속에서의 학습과정이 어떻게 드러나며, 그러한 참여가 어떤 방식으로 본인의 육아 철학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논의를 위해 연구자는 공동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서적과 홈페이지, 신문 매체, 책자 등을 활용하여 공동육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문서와 시각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총 11명의 제보자를 총 14회에 걸쳐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질적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육아 조합원들이 공동체의 존재가치와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 계기와 이유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조합원은 공동육아에 대한 정보를 지인이나 공동육아 사이트나 책자 등을 통해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해당교사의 소개를 받으면서 공동육아를 알아가게 된다. 또한 공동육아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공동육아를 하는 조합원도 있었다. 공동육아에 대한 기대감은 첫째,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소속감과 따뜻함을 느끼며 같은 교육의 지향점을 가진 사람들과 호흡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단순한 친구관계를 넘어서 육아를 매개로 다양한 정보를 나누며 서로의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도움을 주고받고자 하는 욕구, 조합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조합에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등이 있었

다. 그리고 기존의 교육패러다임에 대한 재고로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선택한 조합원도 있었다. 보통의 유치원에서는 이른 나이부터 인지교육을 강요하는 곳도 많이 있다. 그러나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자연의 흐름에 맞는 생활리듬을 갖도록 도와주고 아이들의 관심과 요구를 존중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짜여져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교육이념을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공동육아에 관심을 가진 조합원도 있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교육철학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 하며 그러면서 자신의 교육철학도 공고히 하고 싶은 욕구도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들과의 연대로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키고 싶은 생각으로 공동육아로 온 사람들도 있었다.

여러 계기를 통해 조합원이 된 부모들은 조합원으로서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른 유치원과는 달리 은울 어린이집은 조합원이 주체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 이러한 일을 어떤 조합원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조합원도 있었다. 특히 신입조합원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에 버거워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방어적인 태도를 조금씩 변화시키며 자신의 기존의 사고를 조금씩 바꾸면서 스스로 은울 어린이집에 적응하게 된다.

둘째, 공동육아 조합원들은 공동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며 공동체에서의 참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조합원으로서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첫째, 다른 조합원과의 관계맺기이다. 조합원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별명을 짓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조합원들은 서로의 별명을 부르며 이야기를 한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육아의 독특한 문화에 익숙해지며, 그 가운데 자신과 맞는 가족이 있으면 일상에서의 조그마한 일까지도 함께 한다. 조합원들과의 관계맺기 방식은 아이를 매개로 시작하다가 그 내용이 확장되어 자녀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이야기로 바뀌면서 다른 조합원과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친해지게 된다. 둘째는 토의와 토론을 통한 수평적 소통의 참여이다. 조합원들 간에 토의를 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평등한 관계이며, 총회, 방모임, 조합원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나눈다. 이러한 토론과 토의를 통해 조합원들은 자신의 모습을 반추해 볼 수 있으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계기도 형성된다. 셋째는 개인적 사고의 집단적 공유이다. 조합원들은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과정을 통해 조금씩 자신의 마음의 문도 열려지게 되고 자신의 목소리가 어린이집의 운영에 조금씩 반영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감도 생기면서 조합원으로서의 소속감도 든다고 한다. 네 번째는 날적이를 통한 반성적 글쓰기와 성찰이다. 날적이는 부모와 교사를 연결해주는 소통의 도구이며 자신이 느낀 바를 있는 그대로 솔직히 작성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며 앞으로는 어떠한 삶을 살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재정립해 준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반성적인 글쓰기는 다른 조합원들의 사고를 엿볼 수 있으며, 자신의 삶도 반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섯째 육아에 대한 아빠의 새로운 역할 인식이다. 조합원들은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의 참여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의식변화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이 다양한 조합원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스스로 좁은 사고의 틀 안에서 깨어나 자신을 다듬어가는 변화를 경험하였다.

셋째, 자기학습과정이 자신의 육아방식에 어떠한 모습으로 피드백 되는가? 먼저 '주변적인 참여'에서 '주도적 참여'로의 변화'이다. 은울 어린이집의 조합원은 처음에는 여러 활동에 소극적이었다가 점차 적응을 하면서 점차 자신의 요구를 하며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변화된다. 두 번째는 '학

부모'에서 '부모'로의 변화이다. 은울 어린이집에서의 조합원 교육과 다른 조합원과의 상호작용으로 그들의 교육관이 조금씩 변화하게 되었다. 그들은 기다림과 인내의 미학을 발견하였고 아이들이 사교육기관에 의존하기 보다는 부모에게 삶의 과정을 배우는 것이 참된 교육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세 번째는 '부모시각'에서 '아이시각'으로의 변화이다. 조합원이 된 후에 아이는 미성숙한 존재가 아닌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로 인식하게 되었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그들 스스로 규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는 '내 아이'에서 '우리 아이'로의 변화이다. 공동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를 돌보는 것이다. 어린이집에 가면 아이들은 어른들의 별명을 부르며 친근하게 다가가며, 어른들도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준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친분을 쌓으며 서로의 아이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자신의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다섯 번째는 육아의 몫이 '엄마'에서 '아마'로의 변화이다. 대부분 육아는 엄마가 주로 책임진다고 생각하지만, 은울 어린이집에서는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의 역할도 크다. 특히 아빠들은 어린이집 속성상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선배조합원과의 대화를 통해 자녀양육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육아뿐만 아니라 집안일까지도 아내와 가사 분담할 정도로 의식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2. 결론

본 연구는 은울 어린이집에서 조합원 활동을 하고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공동체 안에서의 경험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조합원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갖추며 그것이 공동체 및 본인의 양육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파악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결과적으로 발견된 것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육아를 지향하는 어린이집에서의 학습과정은 육아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으로써 자녀를 단지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을 넘어서서 부모들이 공동체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성찰, 반성작용으로 능동적인 성인학습자로 성장해가는 과정이다. 조합원들은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람들끼리의 존재와 만남, 사귀, 그리고 나눔과 섬김에 뚜렷한 가치 지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체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지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조합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른 조합원과 관계를 맺으며 토의와 논쟁을 하고 자발적인 활동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반성적 사고 및 실천을 하고 개인적 경험을 함께 나누며 반성적 글쓰기를 함으로써 학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조합원들이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잘 적응할 때 중요한 것은 다른 조합원과의 인간적인 만남과 그 안에서의 의사소통이었다. 조합원이 처음 낯선 환경에서 육아를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 버팀목이 되어 준 것은 선배조합원, 동료조합원과의 밀접한 관계였다. 그들은 서로를 지지해 주며, 상대방이 모르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시켰다. 즉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의사소통적 인간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셋째, 단순히 자신의 경험을 다른 조합원들과 나누며, 교육을 통해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한 경험에 의미를 찾고 자신을 반성할 때 본인 스스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며 결국에 이것은 자신의 삶과 양육 방식에 일정한 영향력을 끼친다. 즉 본인이 변화되면 그들의 삶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며, 조합원들은 적극적인 조합원으로 변모함과 동시에 공동체내에의 실제교육과정과 운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조합원들은 결국 조합원들은 공동육아에서의 활동으로 공동체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한편, 본인도 공동육아의 개념을 체득하며 조합

원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게 된다. 그러면서 그들의 육아방식도 변화하는 양상을 띤다.

지금까지 본 연구자는 은을 어린이집의 조합원들의 변화 모습과 그것이 어떠한 식으로 그들의 양육모습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이해하고자 했다. 그러나 연구자가 조합원들의 모습을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몇 가지 후속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은을 어린이집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여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것에 소극적인 부모들도 있었다. 처음 공동육아에 들어올 때에는 다른 조합원들과 거의 같은 마음으로 시작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되어지고 있는 활동에 관심이 줄어드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런 조합원의 경우에 어떠한 이유로 공동체 활동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됐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밝혀내면 공동체 학습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활동 중에서 조합원들끼리 의견 일치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겉으로는 잘 파악이 되지는 않지만, 심층 면담을 하면서 공동육아의 취지와 이념 부분이나 조합원들 간의 이념의 불일치로 갈등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공동육아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하나의 공동체로 성장하는 데에 극복해야 할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공동체를 유지, 존속시키는 학습경험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연구의 가치가 있다. 이러한 학습경험을 밝혀내면 공동체학습에서의 중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공동육아연구회(1991). 우리 아이들의 육아현실과 미래: 공동육아제도의
전망. 서울: 한울.
- _____ (1994). 함께 크는 우리 아이.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_____ (2000). 코뿔소 나들이 가자.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김경애(2006). 공동경험 구성과정에 나타난 경험학습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연극극단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란(2008). '육아공동체'에서 부모참여의 가능성과 한계: 가족에 의한
공동체의 형성과 경계들. 교육사회학 연구,18(3).pp19-60
- 김신일.(2001). 평생학습사회의 교육학.서울:교육과학사.
- 김주현(2000). 보육의 가족 연대적 접근에 관한 연구: 공동육아 참여경험
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류경희(1999). 공동육아 협동조합 가족의 공동체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 류경희(2001). 공동육아 협동조합에의 참여를 통한 이웃과 갖고 관계의 변
화. 대한가정학회지.39(11):1-16.
- 류경희(2004). 공동육아, 이웃이 있는 가족이야기. 서울: 또 하나의 가족
- 류경희, 김순옥(2000).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대안적 가족형태로서의 가능
성 탐색. 한국가족관계학회지.5(2), 119-151.
- 류경희, 김순옥(2001). 공동육아 협동조합 가족의 공동체성 형성과정 대한
가정학회지, 39(3).107-133.
- 민선향(2006). 성인들의 배움에 관한 연구:학위과정의 참여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부미(1999). '공동육아' 문화의 교육적 해석.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부미(2001). 놀면서 자라고 살면서 배우는 아이들.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이부미,이기범,정병호(2006). 함께 크는 삶의 시작.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이창호(1998). 공동육아협동조합조합원의 참여과정과 집단정체성의 형성-한 조합형 어린이집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 임우연(1995). 공동육아협동조합의 부모참여 과정에 관한 연구- 신촌, 청주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상옥(2001). 대학생 '학회'의 학습공동체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_____(2009). 지역사회 실천조직으로서의 학습동아리에서의 학습과정:부천 생태안내자 모임 '청미래'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15(1),225-259.
- _____(2010). 지역사회와 학습의 관계 탐색-지역사회형성 및 발전과정으로서 학습활동.평생교육학연구,16(2),145-164.
- 박선경(2011). 평생학습공동체 형성과정의 생태학적 연구.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수옥(2005). 중산층 전업주부들의 학습공간으로서 백화점 문화센터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윤경(2010). 협동조합형 공동육아에 참여한 아버지들의 돌봄의 의미화와 가족관계의 변화 : 성인지 관점에서 본 남성 돌봄과 아버지됨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차현진(1997). 공동육아어린이집 나들이 활동의 교육적 의의.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성숙(2012). 성인학습에서 무형식 기제로서의 실천공동체성 분석.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 이은정(2009). 시민교육활동가들의 교육에 대한 관점변화와 실천양상 탐

- 색.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지혜.(1994). 학습공동체를 통한 학습권의 실현. 사회교육연구,19,248-259.
- 양병찬.(2009). 농촌지역 교육공동체의 주체 형성과정-청원교육문화연대의 사례를 중심으로.평생교육학연구,15(4),413-429.
- 오혁진.(2005). 학습공동체의 다차원적 성격과 구현 원리에 관한 연구.평생교육학 연구,11(1),23-41.
- 오혁진(2006). 지역공동체와 평생교육.경기:집문당.
- 유성상(2000). 두레마을의 형성과 교육.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창국(2002). 학습공동체 논의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창국(2009).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과정의 장애요인과 학습의 의미. 평생교육학 연구,15(1),31-65.
- 윤혜정(2007). 지역주민조직에 의한 지역학습공동체의 구성 원리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원섭,이수용,이수연,박수연,박명식.(2010). 성인의 함께 배우기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공동육아에 참여한 부모들의 공동체적 학습과정을 중심으로. Andragogy Today,13(2),1-29
- 정민승(2000a). 온라인 학습공동체에 대한 성인교육학적 해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병호(1995). 공동육아 운동론 함께 크는 우리 아이 서울 : 또 하나의 문화
- 조용환(2005). 질적 연구:방법과 사례. 서울:교육과학사.
- 주영종(2010). 조직문화 연구에 대한 통합과 실증분석.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지희숙(2008). 지역공동체 학습을 통한 지역 네트워크 형성과정 연구:부산

- 반송지역 사례를 중심으로.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선주(2005). 지역공동체운동의 학습 네트워크적 특성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송희(1997). 새로운 보육형태인 ‘공동육아’에 관한 연구 : 공동육아 부모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송희(1997). “성인문해의 문화 담론적 분석”. 사회교육연구 제 3권 1호. 136
- _____ (2001). 평생학습과 학습생태계 -평생교육론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학지사.
- _____ (2005). 포스트모던 시대의 평생교육학. 파주: 집문당.
- _____ (2009). 학습사회를 위한 평생교육론. 서울: 학지사.
- 허 준(2006). 사회운동에 나타난 공동학습 과정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창수(1996). 자본주의의 도덕성과 비도덕성. 왜관: 분도출판사.
- Sawchuk,P.H(2003a). Adult learning and Technology in Working - Class lif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pradley(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ew York:Holt, rinehart & Winston, 이희봉 역 (1996), 문화탐구를 위한 참여관찰방법,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Foot,K.A(2001). Cultural-historical activity theory as practice theory : Illuminating the development of a conflict-Monitoring network, Communication Theory, 11(1), 56-83
- Kuutti, K(1996). Activity theory as a potential framework for human-computer interaction research. In B.A. Nardi(ed), Context and consciousness(pp17-44). Cambridge, MA: MIT

Press.

Morgan, G.(1986). *Image of Organiza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Roth, W.M(2004). Identity as dialectic: Re/making self in urban school mind, *Self, and Activity*, 11(1),48-69.

Sawchuk, P.H(2003a). *Adult Learning and technology in working-class life*. New York:Cambridge University Press.

Sawchuk, P.H(2003b). informal learning as a speech-exchange system: implications for knowledge production, power and social transformation. *Discourse & Society*, 14(3),291-307

Sawchuk, P.H(2005). Frameworks for Synthesis of the Field of Adult Learning Theory. in Fenwick, T. Nesbitt, T & Spencer, B. *Learning for Life : Canadian Readings in Adult Education*. Toronto:Thompson Educational Publishers.

Sawchuk, P.H(2006). Activity and power : Everyday life and development of working-class groups. In P. H. Sawchuk, N.Duarte & M. Elhammoumi(Eds). *Critical perspectives on activity: Explorations across education, work, and everyday life*(pp 238-267).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A case study on the community learning process
of the parents participating in the cooperative
childcare

Choi, Chulkyu

Major in Lifelong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experience in the parents' community and its learning process and examined how their participation has influenced their philosophy of child care.

To discuss them, various books, booklets and newspapers related to cooperative child care were selected to expand the understanding about cooperative childcare. Different learning aspects were examined in the community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participant observation in the field. In in-depth interviews, 11 people were selected and each of them were interviewed once or twice for 1 hou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ollowing three questions:

- 1) What is the reason that the parents in the cooperative childcare recognize the necessity of the community?
- 2) What kind of activities are they doing and how do they

understand their participation in the community?

3) How do their activities in the community give them feedback about their childcare?

To answer these questions researcher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parents in Eun-Yul childcare center. The major findings from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belows.

Most parents heard about the communal childcare cooperative through acquaintances, booklets and online sites. There were some parents who had expectations about the communal childcare cooperative. Some chose the communal childcare cooperative to reconsider the established education paradigm and some had an interest in communicating with those who had the same education philosophy.

Parents are learning in various ways while they are doing a community activities. First, making relationships with others. The ways they form a relationship with others start from the children and then the conversation is expanded so that they talk about their stories and not about their children. Through these conversations, they get to know and understand each other deeply. Second, the participation through discussion and debate. Through debate and discussion, they have an opportunity to change their thoughts. Third, the collective sharing of their personal thoughts. Fourth, reflection through taking notes. Fifth, the father's recognition of new role about parenting.

Parents experience inner change through learning and get to change their attitudes about parenting. Firstly, the change to

'active participation' from 'peripheral participation' Secondly, the change to 'real parents' from 'the school parents'. Thirdly, the change to a child's point of view from parents' point of view. Fourthly, the change to 'our children' from 'my children'. Lastly, the change of the child-rearing responsibility to the 'Ama' from 'the mother'.

* keywords : the cooperative childcare, in-depth interview and participant observation, lifelong education, lifelong learning, learning, community

* Student Number : 2006-23342